

통일교육발전워크숍 (4차)

바람직한 통일의식 형성을 위한 방송의 역할 모색

2000년 11월 24일(금) 10:00~16:30

한국방송회관 3층 회의장

주최 :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후원 : 통일부

바람직한 통일의식 형성을 위한 방송의 역할

2000년 11월 24일(금) 10:00~16:30 / 방송회관 3층 회의장

주최 :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 후원 : 통일부

순서

- 10:00~10:05 인사말: 최진용 (PD연합회장)
- 10:05~12:30 제1주제 - 남북정상회담 이후 방송프로그램과 교육현장의 변화
- 사회: 진희관 (평화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 발제1: 이우승 (한국방송진흥원 책임연구원) _____ 2
-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 관련 프로그램의 변화
- 발제2: 이장원 (전교조 통일국장·영신고등학교 국어 교사) _____ 14
- 남북 정상회담 이후 교육현장에서의 통일교육 변화
- 토론: 김환균(MBC 시사교양국 차장대우)
- 이종두(월계중학교 도덕 교사)
- 김석향(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수)
- 이장희(한국외대 법학과 교수)
- 12:30~13:45 점심시간
- 13:45~16:30 제2주제 - 올바른 통일의식 형성을 위한 방송의 역할
- 사회: 김승수(MBC 드라마국 부국장)
- 영상물 상영: ①남쪽방송을 본 탈북자 인터뷰
하나원(탈북자 사회정착지원시설) 교육생 집단면접
일반북한이탈주민심층면접
- ②북쪽방송을 본 남한시청자 인터뷰
포커스그룹인터뷰(10~20대/30~40대/50~60대)
- * 이 영상물은 9월 27일 열린 '2000 KBS 통일방송 국제심포지엄
- 남북한 화해·협력시대의 방송의 역할'에 소개되었던 것입니다.
- 사례발표: ①김규태(KBS TV제작센터 기획제작 차장) _____ 29
- ②정호식(MBC 시사교양국 차장) _____ 35
- ③오기현(SBS 남북방송교류협력실 PD) _____ 37
- 발제: 이광조(CBS PD, <통일로 가는 길> 연출) _____ 39
- 통일 관련 프로그램 제작환경 점검 및 과제
- 토론: 박창순(EBS TV제작1국 제작위원)
- 장해성(통일정책연구소 연구원, 탈북자)
- 이창현(국민대 언론학부 교수)

정상회담 이후 북한관련 프로그램의 현황

이우승 (한국방송진흥원 책임연구원)

1. 들어가는 말

6월 남북한 정상회담으로 남북 관계가 급진전하고 있다. 사회 각 분야에서 교류가 진행되고 있고 최근에서는 분단의 상징이었던 경의선 복구가 합의되고 구체적인 실천작업이 들어갔다. 교류는 물론이고 남북한의 긴장완화와 협력시대가 열리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인식변화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단기적 효과보다는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대북 정책은 그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조성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남한 국민의 긍정적 인식기반이 조성되어야 앞으로 남북한의 공존을 위한 협력이 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 협력시대에 방송이 추구해야 할, 그리고 방송이 해낼 수 있는 역할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남북한간에 매스미디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극히 제한되어 왔다는 점, 남한 내에서 북한과 통일에 대한 무관심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지금 시점에서 방송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남한 주민을 대상으로 분단과 민족문제에 관심을 제고시키는 것이며 이러한 노력이 프로그램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는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 관련 프로그램의 현황을 살펴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97년에 조사된 해당 프로그램과 비교를 통해 변화의 방향과 문제점을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새로운 남북관계가 조성되면서 북한 관련 프로그램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동서독 관계가 냉전에서 협력시대로 변화하던 60년대 중반에 서독방송이 취했던 동독관련 프로그램 제작의 새로운 방향을 살펴볼 것이다.

2. 북한관련 프로그램의 현황과 문제점

1) 북한관련 TV·라디오 프로그램 현황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형성된 남북간 화해와 협력의 시대적 분위기에 부합하기 위하여 각 방송사들은 기존의 북한 관련 프로그램을 새로운 방향으로 개편하거나 편성하고 있다. 현재 공중파 3사인 KBS1, MBC, SBS와 교육방송인 EBS, 케이블 방송인 K-TV, YTN, 국내 외국인 대상 아리랑TV, 기독교방송 CBS, 평화방송 PBC, 불교방송 BBS에서는 북한 관련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편성하고 있다.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TV 프로그램 중에서 북한관련 프로그램은 KBS1이 <남북의 창>을 매주 목요일 밤 11시 40분~12시 10분 사이에 30분간 편성하고 있고, <북한 리포트>를 매주 화요일 밤 10시~10시 50분 사이에 50분간 편성하고 있다.

MBC는 <통일전망대>를 매주 토요일 오전 7시 45분~8시 사이에 15분간 방송하고 있으며 SBS는 '평양2000'을 <출발 모닝 와이드>라는 종합 뉴스정보 프로그램 내의 한 꼭지로 방송하고 있다.

EBS는 <남북은 하나>를 매주 일요일 오후 8시 30분~9시 20분 사이에 50분간 1회 편성하고 있고, K-TV는 <한민족 우리는 하나>를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30분~7시 10분 사이에 40분 동안 1회 방송하고 있다.

연합 뉴스 YTN은 <통일로>를 매주 화요일 오후 5시 30분~6시 사이에 30분 동안, 아리

랑 TV는 <Eye on North Korea>를 매주 일요일 아침 6시 50분~7시 10분 사이에 20분간 1회 방송하고 있다.

<표 1> 북한 관련 TV·라디오 프로그램 현황

방송사	프로그램	방영시간대	방영시간	방영횟수	형식
KBS 1	남북의 창	목요일 오후 11:40-12:10	30분	1회	공중파 TV
	북한 리포트	화요일 오후 10:00-10:50	50분	1회	공중파 TV
MBC	통일전망대	토요일 오전 7:45-8:00	15분	1회	공중파 TV
SBS	평양2000 출발 모닝 와이드 내	금요일 6:00-	-	1회	공중파 TV
EBS	남북은 하나	일요일 오후 8:30-9:20	50분	1회	공중파 TV
K-TV	한민족 우리는 하나	토요일 오후 6:30-7:10	40분	1회	케이블 TV
YTN	통일로	화요일 오후 5:30-6:00	30분	1회	케이블 TV
Arirang TV	Eye on North Korea	일요일 오전 6:50-7:10	20분	1회	케이블 TV
CBS	통일로 가는 길	수요일 오후 8:35-9:00	25분	1회	Radio
	2000년 남북 평화 만들기	목요일 오후 8:35-9:00	25분	1회	Radio
PBC	삼천리 우리는 하나	일요일 오후 3:05-3:50	45분	1회	Radio
BBS	통일로 하나로	일요일 6:30	-	1회	Radio

라디오 방송 중 북한 관련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기독교방송인 CBS는 <통일로 가는 길>을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35분~9시 사이에 25분간 1회 편성하고 있으며, 동시에 <2000년 남북 평화 만들기>를 매주 목요일 같은 시간대에 편성하고 있다. 평화방송 PBC는 <삼천리 우리는 하나>를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5분~3시 50분 사이에 45분간 1회 방송하고 있으며 불교방송 BBS는 <통일로 하나로>를 매주 일요일 6시 30분에 1회 방송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TV의 경우에 공중파 방송사로는 KBS1, MBC, EBS가 각기 정규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으며, SBS는 정규 종합뉴스 프로그램의 한 꼭지로 북한 관련 꼭지를 구성하고 있다. 이 중에서 KBS1이 <남북의 창>, <북한 리포트>로 2개를 편성함으로써 타 방송사에 비해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특히 방송시간은 KBS1의 경우 두 프로그램을 합해 80분으로 가장 많이 방영하고 있으며 EBS는 50분 동안, MBC는 15분간 방영하고 있다.

케이블 TV 방송 중에는 국정홍보 방송인 K-TV가 40분 동안 방영함으로써 YTN(30분)이나 아리랑 TV(20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라디오 방송의 경우, 기독교방송 CBS가 <통일로 가는 길>, <2000년 남북 평화 만들기>로 2개의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어 다른 라디오 채널에 비해 북한 관련 프로그램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 그리고 PBC도 <삼천리 우리는 하나>를 45분 동안 방송하고 있다.

2) 북한관련 프로그램의 문제점

(1) 기획의도의 획일성

<표 2> 북한 관련 주요 프로그램의 기획의도와 포맷

방송사	프로그램	기획의도	포맷
KBS 1	남북의 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북한 주요 뉴스 전달 북한의 일상생활, 대중문화 소개 북한언론을 통한 뉴스 전달 	뉴스형식
	북한 리포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 생활, 풍물 소개 	다큐멘터리
MBC	통일전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 소식 제공 및 남북 이해 도모 	뉴스형식
CBS 기독교 방송	통일로 가는 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에 대한 편견·오해를 극복하고, 남북관계를 둘러싼 여러 현안들을 북한 주민의 입장에서 살펴보기 북한주민의 일상생활과 문화 소개 	다큐멘터리
	2000년 남북평화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에 대한 편견·오해 찾아내기 남북한간의 공통점, 차이점 발견하기 분단의 역사와 아픔 되짚어 보기 화해와 협력에 대비한 우리의 할 일 	다큐멘터리
PBC 평화방송	삼천리 우리는 하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일문제를 그리스도교의 시각으로 조명해 보고,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통일논의를 활성화하기 	

<표2>는 북한 관련 주요 프로그램의 기획의도와 포맷을 말해주고 있다. KBS1의 경우 <남북의 창>은 남북한 주요 뉴스를 전달하고, 북한의 일상생활, 가요나 만화 등 대중문화를 소개하며, 북한언론을 이용해 북한소식을 전달하고 있다. 또 <북한 리포트>는 북한 일반인들의 생활과 풍물을 기행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소개하고 있다.

MBC는 <통일전망대>를 통해 북한의 소식을 제공하고 남북간 이해를 도모한다는 기획의도를 갖고 뉴스 형식으로 구성하고 있다.

CBS는 <통일로 가는 길>에서 북한에 대한 편견, 오해를 극복하고 남북관계를 둘러싼 현안들을 북한 주민들의 입장에서 살펴보며,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과 문화를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소개하고 있다. 또 <2000년 남북 평화 만들기>에서는 북한에 대한 편견, 오해의 극복과 남북한간의 공통점, 차이점을 발견하고, 분단의 역사로 인해 아픔을 겪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으며, 화해와 협력 시대에 대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밝혀 나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PBC는 <삼천리 우리는 하나>를 통해 그리스도교의 시각으로 통일문제를 조명하고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 통일논의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기획의도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 관련 프로그램은 북한의 소식을 전달하고 북한 일반인들의 일상생활, 문화 등을 소개함으로써 남북한간의 이질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등의 기획의도를 획일적으로 보이고 있다. 즉,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비정치적인 사회 문화 분야에 국한되어 편성되고 있으므로 북한 관련 프로그램의 소재에서 다양성이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기획의도는 생활, 문화 등 비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하면서 북한의 정치, 경제, 인권 문제와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치, 경제처럼 북한의 어두운 면을 부각시키는 과거로 회귀하자는 논리는 아니다. 과거처럼 비난이나 흑색선전이 아닌 객관적인 시각에서 정보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북한의 정치, 경제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노력도 필요하다. 물론 정상회담 이후에 조성된 남북한 화해분위기를 해치지 않으려는 방송사의 조심스러운 태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남북한 평화공존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기획의도를 점차적으로 다양한 분야로 확대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 포맷의 획일성

북한 관련 프로그램은 기획의도로 인한 소재의 획일성에 따라 프로그램 포맷도 다양하지 못하다는 한계를 갖는다. 즉, 북한의 소식을 전달하는 뉴스 형식이나, 북한의 일상생활, 문화, 풍물 등을 소개하는 다큐멘터리 형식이 대부분이다. 경우에 따라 북한의 가요나 드라마를 오락 형식으로 소개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뉴스나 다큐멘터리라는 전체 구성에서 일부분을 차지하는 한 두 꼭지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드라마, 음악/토크쇼, 퀴즈 등 오락 형식 개발과 다양화된 보도, 교양 형식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러한 포맷의 획일성은 TV의 경우에 대부분의 방송사가 북한방송을 주요 자료로 활용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정보원과 자료개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3) 방송 시간대의 주변화

북한 관련 프로그램이 편성되어 있는 방송 시간대는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침 시간대에 4개 프로그램이, 오후 시간대에 1개 프로그램이, 준 프라임 타임대에 2개 프로그램이, 프라임 타임대에 4개 프로그램이, 마지막으로 밤 늦은 시간대에 2개 프로그램이 방송되고 있다. 즉, 13개 프로그램 중에서 프라임 타임대에 방송되는 프로그램은 4개이고 그 중에서도 2개는 라디오 프로그램이었으며, 나머지 6개 프로그램은 아침이나 오후, 준 프라임 타임대, 혹은 밤 늦은 시간대에 각기 방영되고 있었다.

<표 3> 북한 관련 주요 프로그램의 기획의도와 포맷

시간대		방영 프로그램 수
아침 시간대	새벽 6:00-7:00	3개
	아침 7:00-8:00	1개
오후 시간대 12:00-16:00		1개
준 프라임 타임 16:00-19:00		2개
프라임 타임 19:00-23:00		4개 (TV 2개, 라디오 2개)
밤 시간대 23:00 이후		2개

또한 프라임 타임대에 북한 관련 프로그램이 방영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시간대에 경쟁 방송사에서는 인기 프로그램을 편성함으로써 시청률은 한 자리수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시청자들이 자주 접할 수 있는 시간대에 편성될 수 있는 방송사의 관심이 요구된다.

3. 북한관련 정규 TV 프로그램 분석

북한·통일 관련 TV프로그램의 통일지향적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본 연구는 지상파 TV 3사(KBS, MBC, SBS)의 북한·통일 관련 정규프로그램을 그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아쉽게도 SBS는 정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KBS1의 <남북의 창>, MBC의 <통일 전망대> 각 2편을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정규 프로그램만을 분석 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뉴스에서의 북한보도와 같은 비정규 프로그램이 시의적 접근에는 유용한 자료가 되나, 본 연구의 관심대상인 정상회담 이후에 방송에 나타난 북한관 분석을 위해서는 정규프로그램이 북한에 대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모습을 반영하므로 총체적 이해의 측면에서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표 4> 분석 대상 프로그램

구 분	분석대상	꼭지수*
KBS 1 <남북의 창>	• 2000년 10월 19일 목요일	• 8꼭지
	• 2000년 10월 26일 목요일	• 8꼭지
MBC <통일 전망대>	• 2000년 11월 11일 토요일	• 6꼭지
	• 2000년 11월 18일 토요일	• 7꼭지

*오프닝과 클로징은 제외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향 즉, 영상자료를 중심으로 한 영상자료의 출처, 형식, 소재에 대한 분석과 언어에 대한 분석으로 이루어졌다. 영상자료 출처의 분석은 영상자료의 출처가 전달된 내용의 구체성과 객관성을 판단하는 주요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형식과 소재의 분석은 남북한 주민 접촉이 불가능한 현재 상황에서 북한·통일 관련 프로그램이 어떠한 시각과 내용을 가지고 남한 주민들에게 북한 모습을 전달하는가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언어에 관한 분석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여기서 언어란 진행자와 리포터, 나레이터가 사용하는 말과 자막으로 표기된 말들을 말한다. 북한의 조선중앙방송 아나운서의 멘트는 여기에 포함하지 않았다. 언어분석은 빈도수에 의한 양적 방법과 그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자 질적인 방법을 병행하였는데, 수량적 접근에 있어서는 진행자 멘트의 방향성을 긍정, 부정, 중립을 기준으로 살펴보았고, 가치개입적인 언어에 관한 질적 분석에서는 북한의 정치 체제, 북한의 경제, 김일성·김정일 우상화에 대한 평가어, 수식어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북한에 대해 어떠한 기본인식의 틀이 자리잡고 있는지를 해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또 본 연구는 1997년 북한 관련 프로그램 현황 분석의 연장선 상에서 이루어졌다. 1997년 당시 공중파 3사의 북한 관련 프로그램 현황을 분석해 놓은 자료와, 현재 이뤄질 2000년 북한 관련 프로그램의 현황을 비교해 봄으로써 3년이라는 남북간의 정치적 시간 사이에 이뤄진 변화가 프로그램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그 변화를 살펴보려고 한다.

1) 방송사별 자료출처

북한 관련 프로그램의 자료 출처 문제는 북한실정이 어떠한 사실에 기초하여 시청자들에게 소개되고 있는가 하는 내용상의 신뢰성 문제와 현 방송의 제작관행과 태도에 관한 문제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현실적으로 남북한 주민간의 상호왕래는 말할 것도 없고, 북한현장의 직접취재가 여전히 극히 제한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프로그램에 비친 '북한의 실상'은 사실상 '제한된 북한실체'일 수밖에 없다.¹⁾ 따라서 의도적이던 의도적이지 않던 간에 방송사의 자료선별 과정이나 편집구성은 제한된 북한 실체를 절대적 북한실상으로 오도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북한현실 구성이 어떠한 토대에 기초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화면자료의 출처를 각 방송사별로 북한방송, 국내 방송사 제작, 교포 또는 여행자 비디오, 외신, 국내 타매체 자료, 불분명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KBS1의 <남북의 창>은 북한방송을 출처로 하는 경우가 12건으로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방송사에서 제작한 영상을 사용하는 경우가 4건으로 25%였다. 반면 MBC의 <통일전망대>는 여전히 북한방송을 7건으로 53.8% 정도 사용하고 있지만, 국내방송사 제작 영상이 6건 즉, 46.2% 정도로 KBS1에 비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97년과 비교해 보면 KBS1의 경우는 1997년에 비해 외신 영상 자료나 교포 또는 여행자 비디오, 국내 타매체 자료를 사용하는 사례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남북 정상

1) 박종수, 「북한실정 보도프로그램의 내용분석 연구」, 「방송연구」, 1992년 여름호, p. 239.

회담을 통해 남북간 방송교류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어 가는 현 시점에서는 북한방송을 직접 인용하는 비중(59.4%→75%)이 높아지고, 외신을 이용하여 북한에 대해 보도하는 경우가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MBC는 KBS1과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북한방송을 그대로 인용하는 사례는 97년에 82.4%에서 2000년에는 53.8%로 감소하였고, 국내 방송사가 제작하는 경우는 97년 16.8%에서 2000년 46.2%로 오히려 증가하였다. MBC도 KBS1과 마찬가지로 외신 영상을 이용하는 경우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5> 방송사별 자료출처

	2000년		1997년	
	KBS 1	MBC	KBS 1	MBC
북한방송	12 (75%)	7 (53.8%)	161 (59.4%)	108 (82.4%)
국내방송사 제작	4 (25%)	6 (46.2%)	66 (24.4%)	22 (16.8%)
교포 또는 여행자 비디오	-	-	3 (1.1%)	
외신	-	-	11 (4.1%)	1 (0.8%)
국내타매체 자료	-	-	1 (0.4%)	
불분명	-	-	29 (10.7%)	
합계	16 (100%)	13 (100%)	271 (100%)	131 (100%)

북한실정 프로그램을 비교해 볼 때 가장 특징적인 현상은 북한방송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다. 북한방송이 북한실정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 절대적 정보원이 되고 있는 것은 북한방송자료가 북한의 현상황을 현실감 있게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시청자에게 북한 영상화면을 그대로 제시함으로써 시청자에게 프로그램의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근저에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객관성의 이면에는 정부에서 방송국에 이양되는 북한방송의 자료배분 과정 그리고 자체 녹화된 북한 프로그램을 개별 방송국이 취사선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관성 개입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북한방송을 절대적인 정보원으로 삼는 우리의 제작태도와 관행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 관련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표가 북한의 단순한 소개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북한 실상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높임으로써 동질성 회복과 궁극적으로 통일지향적인 분위기 조성에 그 사명과 역할이 있다. 따라서 북한 관련 프로그램을 북한방송을 토대로 제작하는 것²⁾이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안위에 만족해서는 안된다. 진정 북한을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내용은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제작진의 진지한 고민을 통해 보다 다양한 각도에서 북한현실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2) 방송사별 복지형식

2) 이러한 제작관행은 동독 국영방송이 통일전에 서독관련 프로그램으로 방송하였던 'Schwarzer Kanal'(검은채널)의 제작방법과 동일하다. 'Schwarzer Kanal'은 서독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을 편집해 방송하면서 서독 프로그램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나아가 서독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제작방법의 단순성, 반복성 그리고 프로그램이 전달하는 서독관과 동독주민들의 지니는 서독관과의 괴리가 동독인들이 자체 국영방송이 전달하는 서독관을 거부하는데 일조하였다.

북한 관련 프로그램의 꼭지형식을 북한방송 직접사용, 보도, 대담, 해설논평, 인터뷰, 취재 탐방 등으로 분류하여 방송사별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6> 방송사별 꼭지형식

	2000년		1997년	
	KBS 1	MBC	KBS 1	MBC
북한방송 직접사용	9 (56.3%)	6 (46.2%)	51 (18.8%)	108 (82.4%)
보도	4 (25%)	2 (15.4%)	191 (70.5%)	3 (2.3%)
대담	2 (12.5%)	2 (15.4%)	3 (1.1%)	
해설논평	-	-	18 (6.6%)	2 (1.5%)
인터뷰	-	-	4 (1.5%)	13 (2.7%)
취재탐방	1 (6.2%)	1 (7.6%)	4 (1.5%)	5 (3.8%)
기타	-	2 (15.4%)	-	-
합계	16 (100%)	13 (100%)	271 (100%)	131 (100%)

KBS1의 경우 <남북의 창>은 북한방송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가 9건으로 56.3%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높았고, 보도 형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4건으로 25%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대담 형식은 2건으로 12.5%를 차지하였다. MBC의 <통일 전망대>는 북한방송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가 6건으로 46.2%를 차지해 KBS 1과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보도와 대담, 기타(학습용도)가 각각 2건으로 15.4%로 나타났다.

이를 1997년과 비교해 보면, KBS 1은 97년에 보도 형식을 가장 선호했던 것(70.5%)에서 2000년에 북한방송 직접사용(56.3%)으로 비중치가 옮겨졌다. MBC는 97년에 북한방송 직접사용의 비중(82.4%)이 가장 높았으며 2000년에도 여전히 가장 높은 비율(46.2%)을 차지하고 있으나 수치상에서 보면 그 비중이 줄어들었다. 이러한 변화는 MBC가 방송사별 출처에서 북한방송의 비중이 2000년도 들어 줄어드는 것과 일치되는 결과이며, 북한방송을 출처로 하여 직접 사용하는 것보다는, 국내 방송사에서 대담이나 취재탐방, 기타(학습) 등의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KBS, MBC에서 해설논평과 인터뷰가 전혀 없이 주로 북한방송 소개와 보도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은 제작부서가 보도국이라는 특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또한 북한 실정이나 남북관계에 대한 시청자들의 이해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노력이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방송사별 꼭지소재

북한·통일 관련 프로그램이 주로 다루고 있는 분야를 알아보기 위해 정치, 경제, 사회·교육, 생활·문화분야로 나누어 분석을 시도하였다.

KBS1의 <남북의 창>의 경우에는 남북한을 비롯한 외교관계가 5건으로 37.5%를 차지하여 가장 비중 높게 다루었고, 북한의 가요나 드라마 등의 오락이 3건으로 18.5%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사상강화 각종행사, 문화/예술/학술, 북한의 자연이 각 2건으로 12.5%씩 차지하고 있다. MBC는 사상강화 각종행사와, 북한 주민생활상, 문화/예술/학술이 각 3건으로 23.1%를 차지하였으며, 김정일 동정, 군사/전쟁, 외교, 자연이 각 1건으로 7.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표 7> 방송사별 꼭지소재

	2000년		1997년	
	KBS	MBC	KBS	MBC
정치적 상황	-	-	27 (10.0%)	2 (1.5%)
김정일 동정	-	1 (7.7%)	12 (4.4%)	1 (0.8%)
북한인사, 귀순자의 주요동정	-	-	9 (3.3%)	2 (1.5%)
군사/전쟁	-	1 (7.7%)	10 (3.7%)	7 (5.3%)
외교	6 (37.5%)	1 (7.7%)	32 (11.8%)	1 (0.8%)
통일문제	-	-	7 (2.6%)	3 (2.3%)
산업, 기술개발	-	-	43 (15.9%)	55 (42.0%)
식량난	-	-	37 (13.7%)	1 (0.8%)
사상강화 각종행사	2 (12.5%)	3 (23.1%)	18 (6.6%)	26 (19.8%)
남한의 관련행사	-	-	2 (0.7%)	5 (3.8%)
우상화/사상교육	-	-	17 (6.3%)	7 (5.3%)
주민생활상	1 (6.3%)	3 (23.1%)	15 (5.5%)	6 (4.6%)
역사/문화재	-	-	1 (0.4%)	-
문화/예술/학술	2 (12.5%)	3 (23.1%)	13 (4.8%)	2 (1.5%)
자연	2 (12.5%)	1 (7.7%)	6 (2.2%)	1 (0.8%)
오락	3 (18.5%)	-	1 (0.4%)	4 (3.1%)
기타	-	-	21 (7.7%)	8 (6.1%)
합계	16 (100%)	13 (100%)	271 (100%)	131 (100%)

이를 97년과 비교해 보면 KBS1은 북한의 산업, 기술 개발을 15.9%(43건)로 가장 많이 다루었고, 외교를 11.8%(32건), 정치적 상황을 10%(27건)로 다루었던 데 반해, 2000년에는 외교분야(37.5%)가 가장 많이 다루어졌다. 문화/예술/학술(4.8%→12.5%), 자연(2.2%→12.5%), 오락(0.4%→18.5%) 등의 소재가 97년에 비해 더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상황, 김정일 동정 그리고 북한인사, 군사, 식량난, 우상화와 같은 북한내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보도는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최근의 프로그램 제작방향이 연성소재 위주로 치우치고 있다는 느낌이다.

MBC는 97년에 KBS1과 마찬가지로 산업, 기술 개발을 42%(55건)로 가장 많이 다루었고, 북한의 사상강화 각종행사를 19.8%(26건)로 두 번째로 많이 다루었다. 그러나 2000년에는 산업, 기술 개발에 대한 소재가 선정되지 않았고, 사상강화 각종행사가 조금 높은 비중을 얻었으며(19.8%→23.1%), 주민생활상(4.6%→23.1%), 문화/예술/학술(1.5%→23.1%)이 97년에 비해 새로이 조명을 받았다. MBC 역시 KBS와 마찬가지로 정치, 우상화, 식량문제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4) 방송사별 진행자 멘트의 방향성

북한·통일 관련 프로그램은 진행자가 방송물을 소개하거나 해설을 곁들인 상황설명을 통해 시청자의 이해를 도모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진행자의 멘트는 방송물에 대한 시청자 이해를 돕는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더불어 설명 또는 해설이 갖는 강한 규정성으로 인해 시청자의 자유로운 판단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다. 즉 북한·통일 관련 진행자 멘트는 그 내용에 따라 북한실상과 통일문제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으며 반대로 북한에 대한 시청자 인식의 폭을 극히 제한시킬 수 있는 양면성을 띠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방송설명, 해설, 소개에 따른 진행자 멘트를 방송사별로 긍정, 중립, 부정으로 나누어 어떠한 입장에서 북한에 대한 인식을 견지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KBS1과 MBC는 2000년도에 유사한 논조 방향성을 보이는데, 긍정적 멘트가 KBS1은 37.5%로, MBC는 30.8%를 나타냈으며, 부정적 논조는 발견되지 않았고, 중립적 멘트가 KBS1이 62.5%, MBC가 69.2%로 나타났다.

반면 이를 1997년과 비교해 보면 남북 정상회담이 남한 방송의 대 북한 논조에 얼마나 큰 변화를 야기시키는지 확인할 수 있다. 즉, 97년에는 긍정적 논조가 KBS1이 6.2%, MBC가 5.6%였고, 부정적 논조는 KBS1이 66.5%, MBC가 48.1%였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2000년에는 부정적 논조가 사라졌고, 대부분 중립적 논조나 긍정적 논조로 전환했다.

<표 8> 방송사별 진행자 멘트의 방향성

	2000년		1997년	
	KBS 1	MBC	KBS 1	MBC
긍정적	6 (37.5%)	4 (30.8%)	10 (6.2%)	6 (5.6%)
부정적	-	-	107 (66.5%)	52 (48.1%)
중립적	10 (62.5%)	9 (69.2%)	44 (27.3%)	50 (46.3%)
합계	16 (100%)	13 (100%)	161 (100%)	108 (100%)

5) 가치개입적 언어에 관한 분석

영상화면을 통해 제시되는 북한의 모습이 시청자들에게 북한의 이미지로서 존재한다면, 진행자와 리포터가 사용하는 언어는 화면이 갖고 있는 의미를 규정하는 틀로 작용한다. 북한에 관한 스테레오타입을 구성하는 요소들 중에서 언어는 북한에 관해 가장 명백한 인식의 틀을 제공하고, 방송인들의 주관성이고도 가치관을 보여준다. 여기서는 특히 이러한 가치개입적 언어들을 분석함으로써 북한 관련 프로그램에 내재된 북한에 관한 스테레오타입을 밝히고자 한다.

방송사별 꼭지 소재 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대부분 방송에서는 북한의 정치적 체제나 경제적 어려움,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에 대해 직접적인 논평을 삼가고 있다.

여기서는 1997년에 각 방송사들이 북한 관련 프로그램에서 보였던 각 사안에 대한 수사와 2000년 현재 각 방송사가 사용하는 언어를 비교해 봄으로써 그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북한의 정치 체제

1997년에는 북한의 정치 체제를 철저히 통제되고 폭압적인 체제, 따라서 곧 붕괴될 체제로 묘사했던 것에 반해, 2000년에는 미국과 공동선언을 통해 수교 의사를 밝히고, 아셈이 북한의 가입을 허용하기 위해 기록을 수정하는 등, 국제사회에 참여하는 합법적인 존재로서 인정하고 있다는 표현(MBC <통일전망대> 11월 11일)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표 9> 북한의 정치 체제에 대한 표현

	2000년	1997년
북한의 정치 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과 공동선언을 통해 수교 의사를 밝힌 북한 • 아셈이 북한의 가입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정치체제는 철저히 통제되고 폭압적이다 • 북한 정권은 곧 붕괴될 것이다

(2) 북한의 경제

북한의 경제 현황에 대해서 1997년도에는 경제난을 중점적으로 강조하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북한 산업이 전반적으로 낙후되어 있다는 멘트가 전반적이었던 데 반해, 2000년에는 북한의 경제난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이슈가 거의 없고, 설사 다루더라도 간접적으로 경제난을 다루더라도 문제의 심화보다는,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연료를 아끼는 운전교육을 실시한다는 식의 긍정적 소재와 표현을 선정하고 있다(MBC 11월 18일). 또 건강식품을 의미하는 민간요법은 남한보다 북한이 더 발전되어 있다는 귀순자의 말을 직접 인터뷰했는데(MBC 11월 18일), 이러한 표현은 북한이 경제난으로 인해 붕괴될 것이라는 위기감은 전혀 나타내지 않고 있는 것이다.

<표 10> 북한의 경제에 대한 표현

	2000년	1997년
북한의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료난이 심각한 북한에서는 운전교육도 연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에 초점이 맞춰 있다 • 민간요법(건강식품)은 북한이 더 발전돼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 모든 물자가 부족하다 • 산업이 낙후되어 있다

(3) 김일성, 김정일 이상화

1997년에는 김일성, 김정일의 이상화에 대해 남한의 방송사들이 사이비 종교집단에 비유하거나, 이상화가 강요된 것이며, 점차 이상화의 수위가 높아진다는 표현을 통해, 북한 주민의 김일성, 김정일 이상화에 대해 부정적 어조를 드러내었다.

이에 대해서는 2000년도에도 논조상의 변화는 없었으나, 김일성, 김정일의 이상화에 대해 직접적인 논평을 삼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북한의 각종 행사 장면을 보여주는 꼭지에서 진행자는 집체 창작에 대해 언급하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충성심이 어느 정도인지 느낄 수 있다는 말을 통해 이상화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어조를 나타내고 있다(MBC 11월 11일).

<표 11> 북한의 김일성·김정일 이상화에 대한 표현

	2000년	1997년
김일성·김정일 이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돌격대 5만명이 모여 대합창...규모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충성심이... 어느 정도인지 느낄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을 찬양하는 것을 제일의 목표로 삼는다 • 이상화의 수위가 높아지는.. • 사이비 종교집단 • 존경과 충성을 강요하는...

4. 남북협력 시대에 북한·통일관련 프로그램의 제작방향

1) 새로운 북한·통일관련 프로그램의 패러다임: 다양성을 통한 객관성

정상회담이 우리 사회에 미친 가장 큰 영향 가운데 하나는 소위 ‘김정일 쇼크’일 것이다. 이것은 방송이 보여준 그의 모습이 지금까지 국내 언론을 통해 국민이 갖고 있었던 이미지와 전면 배치되기 때문이었다.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호탕하고 개방적 인상을 강하게 심어주었다. 김정일 쇼크는 바로 지금까지 남한 방송이 묘사해온 김정일 국방위원장 및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획일성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다양한 접근과 시각의 부재에서 쇼크가 발생한 것이다.

지금까지 북한·통일 관련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해 방송사를 비롯해 방송현업인들의 자율단체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³⁾. 이들 가이드라인의 공통점은 남북한 문제를 다루는 핵심적인 기본원칙으로 보도의 객관성과 민족의 화합과 화해라는 큰 틀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첫 번째 원칙은 ‘저널리즘의 실천윤리’로서 정확성, 진실성, 균형성, 중립성을 지키는 것이고, 두 번째 원칙은 민족의 재통일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 ‘민족이념적 지향성’을 지니는 것이다. 이것은 이질성보다는 동질성에, 적대적 관계보다는 상호존중과 화해를 촉발하는 이념적 태도를 갖는 것이다. 또한 민족전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일 것이다.

그러나 객관성과 민족의 화합과 화해라는 두 가지 기본원칙은 북한의 부정적인 상황이나 남북간 국력 차이 등을 있는 그대로 보도할 경우 객관성에는 부합하지만 남북화합의 정신에 어긋나 남북간의 화해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즉 이 두 원칙은 갈등관계에 놓여 서로 충돌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양자간의 갈등관계는 다양성에 바탕을 둔 프로그램 제작방향으로 서로 조화와 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⁴⁾

다양성은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과거처럼 부정, 혹은 현재처럼 긍정 일변도라는 극단적 지향성을 벗어나 다양한 관점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보도태도를 의미한다. 이는 방송이 형성하는 북한이미지와 연결시켜 생각해 볼 수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가난과 대량살상무기였다. 그리고 정상회담 이후에는 방송의 보도태도가 급격한 변화를 보여 이제는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측면을 주로 부각시키고 있다. 북한을 부정과 긍정이라는 2분법적 분석태도로 접근하던 자세를 극복하고 이제는 부정과 긍정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측면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90년 남북 고위급회담과 이번 정상회담 보도에 나타났던 북한 이미지를 분석해보면 부정적 이미지에서 긍정적 이미지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90년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던 ‘합리’, ‘도덕’, ‘풍요’, ‘우월’, ‘온건’, ‘개방’, ‘일면’적 이미지들이 2000년에는 상당히 많이 나타난다. 다시 말해서 90년도에는 북한을 비합리적이고 폐쇄적인 의도를 숨긴 다면적인 모습으로 묘사한 반면, 2000년의 경우에는 우호적이며 합리적이고 일면적인 이미지로 북한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⁵⁾.

〈표 12〉 연도별 북한 이미지 변화추이

연도	적대 /우호	비합리 /합리	이질 /동질	비도덕 /도덕	강경 /온건	폐쇄 /개방	다면 /일면
1990	2/18	4/0	2/7	2/0	2/0	8/0	7/0
2000	1/52	1/16	1/24	0/2	0/11	2/11	1/13
계	3/70	5/16	3/31	2/2	2/11	10/11	8/13

3) 먼저 KBS가 2000년 정상회담과 관련해 준비한 보도준칙, 1998년도 KBS, SBS 제작 가이드라인 내에 북한관련 조항 그리고 1995년에 ‘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이 있다.

4) 이우승, 《남북교류시대의 언론보도》, 국민일보, 2000. 6. 13

5) 이우승, 《정상회담 뉴스보도 분석》, 한국방송진흥원, 2000.7.

또한 민족화해와 관련해 그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는 상호이해는 결코 차이점에 대한 침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를 존중함으로써 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북한 관련 프로그램 내용의 다양성은 민족화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처럼 부정과 긍정에 일방적으로 치우친 보도자세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한 정확한 판단 자체를 불가능하게 한다. 또한 방송사에게는 남북관계의 가변성과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자칫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너버리는 위험까지도 안겨 줄 수 있다.

객관성은 보도 아이템 단위 내에서의 객관성과 특정 채널 전체 내용과 소재의 다양성 내지는 형평성을 통한 객관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이제 남북 화해시대에 방송이 추구해야 할 객관성은 지금까지 획일적이었던 내용의 다양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을 정확히 알려줄 수 있는 정보가 제한되어 있고, 국내에는 대북정책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가진 계층이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프로그램 내용의 다양성은 다원적인 북한 이미지를 제공하게 될 것이며 이것이 남북 평화공존 시대에 방송에 요구되는 객관성을 일정부분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소재와 포맷의 다양화

국내 북한 관련 프로그램의 새로운 방향설정을 논할 때에, 서독 방송이 60년대 중반에 동독과의 정치적 환경변화 시대에 보여주었던 변화의 방향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즉 교류와 협력, 나아가 통일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독 국민들의 동참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동독과 민족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켜야 한다는 점이다⁶⁾.

북한 관련 프로그램은 무엇보다도 소재와 포맷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정상회담 이후에 조성된 새로운 남북관계 시대에 지금도 주요 방송사들은 기존의 포맷을 전혀 변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특히 북한에 대해 무관심한 청소년층을 시청자층으로 흡수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포맷을 다양화시키고 계층별로 차별화된 프로그램 제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0대 이후 세대와 10대, 20대가 선호하는 주제나 전달방식은 다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보도국뿐만 아니라 PD가 참여하는 북한 관련 프로그램의 제작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이우승, 《남북 당국자회담에 대한 뉴스분석보도》, 한국방송진흥원, 2000. 9.
2. 이우승, 《남북 영상물교류 및 제작협력 활성화 방안연구》, 한국방송진흥원, 1999.
3. 이우승, 《정상회담 뉴스보도 분석》, 한국방송진흥원, 2000.7.
4. 이우승, 《남북교류시대의 언론보도》, 국민일보, 2000. 6. 13.
5. Woo-Seung LEE, Das Fernsehen im geteilten Deutschland 1951-1989. Ideologische Konkurrenz und programmliche Kooperation, Münster대학 박사논문 1996.
6. Volker Herres, Kennzeichen D. Über die Schwierigkeiten, ein deutsch-deutsches Fernsehmagazin zu machen, 1983.

6) 이우승, 《정상회담 뉴스보도 분석》, 한국방송진흥원, 2000.7.

남북 정상 회담 이후 학교 통일교육의 변화

이장원 (영신고등학교 교사, 전교조 통일국장)

남북정상회담 이후 우리 사회의 분위기는 많이 변화했다.

남북정상회담은 지난 50년간 우리의 국민의식을 지배해온 냉전적 사고방식에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정신문화적 충격을 가하고 있다. 각종 조사 결과에 의하면 남북정상회담으로 국민들의 김정일 위원장과 북한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크게 늘어났다고 하며,¹⁾ 30%의 학생이 통일에 대해, 그리고 40%의 학생이 북한에 대한 생각이 부정적이었던가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했다.²⁾ 이산가족 상봉에서 남한으로 온 북한 사람들 대부분이 월북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남쪽 가족들은 '월북자 가족'임을 더 이상 숨기려 하지 않고 있으며, 국민들이 그들을 보는 시선도 따듯해져가고 있다.

이러한 냉전적 의식의 변화를 '혼란'으로 바라보고 우려하는 견해도 적지 않지만, 국민과 학생들의 이런 의식 변화는 냉전 시대에서 평화공존, 화해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즉 탈냉전 시대로의 변화에 따라 타협보다는 대결을, 공존보다 상극(相剋)을, 신뢰보다는 불신을 기본으로 하는 냉전적 사고방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것은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이런 탈냉전적인 사고로의 전환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 보편화되어 있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는 과도기적 상황이 아닌가 한다.

우리 사회에서 냉전의식, 분단의식의 뿌리는 매우 깊고 넓으며, 그런 의식에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세력의 존재와 영향력도 매우 깊다. 역사적 경험상 이런 냉전의식, 분단의식은 남북화해의 진전을 가로막는 중요한 장애가 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남북화해 시대를 굳히고, 남북화해를 뒷받침하는 국민적인 힘을 형성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시급히 요청되는 것은 국민들의 냉전적 의식과 분단 의식을 탈분단적인 화해의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광범한 '민족화해교육'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PD를 비롯한 방송인과 우리 교사들의 책임이 매우 막중하지 않은가 생각한다. 방송은 국민의 여론과 의식을 형성하는 데, 교사는 천만 학생의 의식을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특히 TV는 청소년들의 통일의식을 형성하는 데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므로³⁾, 청소년의 민족화해 의식의 형성을 위해서는 방

1) 한국방송진흥원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상회담 전에는 김 위원장의 지도력과 신뢰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각각 20.2%(지도력), 15.1%(신뢰성)였으나 회담 후에는 63.7%와 50.2%로 늘어났으며, 또 회담 전에는 북한 사회의 이미지가 긍정적이었던 사람이 10.4%에 불과했지만 회담후에는 46.5%로 증가해 자그마치 36.1%가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사회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6월 16일) 동아일보가 6월 15일 '리서치 앤 리서치(R&R)'에 의뢰해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도 김 위원장의 긍정적 이미지가 10배 이상 증대하였다고 한다(동아일보 6월 16일)

2)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 중·고생의 통일 의식에 대한 설문조사 보고서」, 2000. 7. 20.(조사대상 : 전국 중고생 2000명, 조사기간 : 2000. 7. 10.~15)

질문 : 남북정상회담 이후 통일과 북한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습니까?

	①전이나 지금 이나 긍정적	②부정적에서 긍정적으로	③전이나 지금 이나 부정적	④긍정적에서 부정적으로	⑤지금 매우 혼란스러움	⑥무응답
통일에 대한 생각	40.8%	29.9%	15.7%	1.8%	10.8%	1.0%
북한에 대한 생각	28.6%	39.0%	17.8%	1.2%	10.5%	2.9%

송인의 역할이 결정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족화해 교육을 위한 방송인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의지가 요구된다.

1. 학교 통일교육의 현주소

남북정상회담 이후 국민들의 의식 충격의 여파로 학교 교육이 시대에 뒤떨어진 '냉전교육'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학교 통일교육에 대한 사회언론의 관심이 높아졌고, 몇 가지 변화들이 나타났다.

첫째, 통일교육 자료의 보급을 위한 노력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부의 통일교육 CD가 제작되어 학교에 보급될 예정이며, 서울시 교육청에서 11월 통일교육 혼화자료를 발행하여 학교에 보급하였으며, 충북 교육청에서도 자료를 발행하여 보급하였으며 통일원에서는 사이버 통일교육센터(<http://www.uniedu.go.kr>)를 개설하여 정보 제공에 나섰다.

둘째, 교육부와 통일부 사이에 통일교육을 위한 협의체가 만들어져 통일교육에 대한 부서간 협조를 위한 노력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⁴⁾.

셋째, 통일교육의 내용을 정치, 경제, 이념 등 거대 담론 중심에서 생활문화적인 내용을 강화 보강하여야 하며, 부정 일변도의 북한에 대한 교육 내용을 지양하여야 한다는 데 통일교육 관계자들간의 대략적인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넷째, 통일교육원 등의 교사들에 대한 통일교육에서 '남북 화해'의 필요성과 당위성 등에 대한 보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들은 아직 학교 현장에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보인다.

첫째로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냉전 의식의 영향을 받아 통일교육 정책을 책임지는 교육부 및 통일부 관계자들의 의식전환이 확고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지난 번 7차 교육과정 개편 초등학교 교과서에 남북정상의 악수 장면 사진을 실었다고 일부 언론의 질타를 받은 바와 같은 사태를 의식하는 통일교육 관련 관계자들은 통일교육 방향 및 내용의 전환에 관해 매우 조심스럽고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때문에 통일교육 관련 교과서 내용의 수정이나 개편은 피하면서, 보수층의 반발을 사지 않을 정도의 교육 보조 자료의 개발, 보급 수준에서 통일교육의 변화에 개입하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때문에 학교 현장에는 아직 통일교육의 변화라 할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못하다⁵⁾. 교과서의 내용이 변화하지 않았고, 교육보조 자료마저 아직 제대로 보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 통일교육의 변화는 전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진 교사들의 자발적 노력에 맡겨져 있는 상황인 것이다.

둘째로는 학교 통일교육을 책임지는 교장 및 사회교육부장, 그리고 청소년 교육단체의 보수적 의식이 변화하지 않았고 - 일부 인사는 변화하였지만 전체적으로 -, 그들의 학교 통일교육에 대한 영향력이 거의 절대적이라는 데 있다고 생각된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통일교육은 교사에 의한 수업 외에, 체험학습, 초청 강사 강연, 위탁 교육, 학교 행사 등이 있다 이런 학교 통일교육의 진행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힘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학교장과 부장교사 그리고 그 동안 학교와의 관계 속에서 청소년 교육에 개입해온 청소년 교육단체들이다. 따라서 이들이 변화하지 않은 조건에서 학교 통일교육의 변

3) 학생들이 북한이나 통일에 대한 정보를 어디에서 얻느냐는 설문을 하면 TV가 절대적이고, 다음이 신문과 라디오, 그리고 학교와 선생님 순으로 나타난다. 2000 전교조 설문 결과(복수응답) 교과서나 선생님 24.7%, 신문, 라디오 48.1%, TV 87.7%, 주변 어른 7.6%, 인터넷 9.9%, 97년 '통일을 생각하는 서울교사모임'의 설문(1997. 2. 중학생 171명 대상)에서도 TV, 라디오 66.8%, 신문 15.6%, 학교수업 9.4%, 주변어른 5.5%로 비슷하게 나왔다.

4) 수년간 통일부와 교육부는 통일교육을 위한 협의체를 갖고 있지 않았다.

5) 뒤에서 말하듯이 교과서의 통일교육 내용이 문제점이 많이 있지만, 교육부에서는 이것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며, 교과서 내용 수정 지침을 내리지 않고 있다.

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도 6·25 50주년 기념 행사장인 ‘전쟁기념관’을 많은 학생들이 체험학습으로 찾았으며⁶⁾, 서울의 경우 4월부터 11월까지 120개 학교 모두 24,000명이 자유총연맹의 ‘고교생 1일 통일학교’에 위탁 교육을 받고 있다⁷⁾. 또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강연 역시 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 인사⁸⁾, 자유총연맹 인사, 탈북자 등으로서 냉전 의식을 탈피하지 못한 인사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학교 통일교육이 냉전의식을 아직 벗어나지 못한 인사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 남북화해 교육의 바람은 미풍(微風)에 그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북한 어린이 돕기 사업을 벌이고 있는 사단법인 남북어린이어깨동무는 국정홍보처의 지원을 받아 ‘남북한 평화공동체를 위한 평화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학교 순회 교육에 나섰으나 학교장의 벽에 부딪쳐 2500명을 교육하는 데 그치고 있다 하며, ‘통일을 생각하는 서울교사모임’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KTV PD로부터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어린이의 간단한 인터뷰 요청을 받아 학교장에게 허락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는 일도 겪은 바 있다고 한다.

아직도 많은 초등학교에는 이승복 어린이 동상이 서 있다. 이승복 어린이는 반공교육의 상징이었다. 오랫동안 교과서에서 북한 공산주의자의 잔학성을 성토하기 위한 교재로 자리 잡았었고, 반공운동대회의 단골 소재였다. 그러던 이승복 어린이가 6차 교육과정 개편시 교과서에서 사라졌지만, 여전히 초등학교 교정에 남아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강원도의 이승복 어린이 기념관으로 해마다 수많은 어린이들이 체험 학습을 하러 간다. 이것이 뿌리 깊은 학교의 냉전적 교육 관행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되풀이되고 있는 학교 통일교육의 현주소이다.

이승복 어린이의 죽음은 분단과 냉전적 남북대결의 비극이다. 그런 면에서 이승복 어린이 사건이 평화와 화해를 위한 교육의 소재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승복 어린이가 “공산당이 싫어요.” 하고 말했다는 것 자체의 진위가 아니라, 그런 언행 자체를 영웅시하고 그를 기려 교육 소재로 삼은 의식 자체에 있는 것이다. 사상과 체제에 대한 판단력을 가질 수 없는 나이인 9살 아이가 “공산당이 싫어요.” 하고 말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반공 교육이 비정상적 교육행위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9살 어린이의 언행을 영웅시하는 교육을 당연시하고 동상까지 세워 기리고 있다는 것은 교육적인 사고라기보다 비지성적인 냉전 의식의 산물이라 할 수밖에 없다. 지성이 지배해야 할 학교 사회에서 이승복 어린이 동상이 여전히 교정에 세워져 어린이들에게 받들어 모셔지고, 이승복 어린이 기념관 체험학습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학교 사회가 지성보다 냉전 논리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현실을 아주 상징적으로 잘 나타내주고 있다.

2. 학교 통일교육의 문제점

- 6) 한국 전쟁의 참상은 그 자체가 평화와 화해를 위한 통일교육의 체험학습 소재로서 훌륭한 소재이다. 그러나 전쟁기념관과 같은 학생들이 찾는 대부분의 통일체험학습장은 북한 공산군의 만행을 담은 자료들, 북한의 암담한 면을 보여주는 자료만으로 꾸며져 있고, 전쟁과 분단의 또 다른 측면 즉 남측과 미군 측에 의한 피해의 장면이나 북측의 긍정적 측면을 보여주는 자료는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어, 사실상 북한에 대한 적개심과 북한 주민에 대한 동정심을 유발하는 승공교육장 역할을 한다는 면에서 사실상 냉전 교육의 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 7) 자유총연맹의 1일 통일교육은 60년대 ‘1일 승공교육’에서 비롯된 것인데, 올 여름방학 직전까지 시행된 서울지부의 교육프로그램 가운데는 ‘공산주의는 칠패를 좋아한다’는 등 맹목적인 반공교육 문구가 내 걸린 ‘자유평화관’ 견학 프로그램이 있었고, 교재 ‘민주시민과 시민사회’라는 책자에는 북한 청소년들이 주로 진지점령하기, 저격수놀이, 탱크맞히기, 군기빼앗기, 적진지 쳐들어가기 등 군사놀이를 즐겨한다고 소개하는 등 냉전 이데올로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겨레신문, 2000. 9. 19)
- 8) 올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업계획에는 교육부의 협조를 얻어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바탕을 둔 조국통일 당위성 설명, 통일문제 관심 계고’를 위해 232개 지역협의회에서 5~6월중 1,074개 학교를 방문 583,900명을 대상으로 집중교육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다.

(1) 학교 통일교육의 급속한 영향력 상실

여러 설문 결과들을 분석해보면 그간 학교 통일교육은 학생들에 대한 영향력을 급속히 상실해왔다. 학교 통일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를 묻은 설문 결과를 보자

설문 내용 : 학교에서 받아본 통일, 북한관련 교육에 대해 평가해주시시오.9)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①+②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③+④	⑤ 배운 기억이 없어 모르겠다
학교에서 받은 통일교육이 북한 사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4.2%	28.8%	33.0%	42.7%	9.3%	52.0%	15.0%
학교에서 통일교육을 받으면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까?	7.5%	34.8%	43.9%	33.5%	11.1%	44.7%	11.5%
정상회담을 통해 본 북한과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까	2.6%	25.9%	28.5%	35.3%	18.5%	53.8%	17.7%
학교 통일교육에 흥미와 관심을 느끼니까	7.8%	22.3%	30.1%	36.1%	19.3%	55.4%	14.5%

이 설문 결과는 통일교육이 교육적 효과를 상실했음은 물론,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흥미를 앗아가는 역효과까지 낳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런 현상은 뒤에서 말할 학교 통일교육의 교육과정과 내용, 방법상의 문제와 아울러 청소년에게 급속하게 영향력이 확대되어온 사회여론과 언론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일어난 현상이라 파악된다. 청소년의 통일의식에 미치는 사회 여론과 언론의 영향력은 거의 절대적이다. 각종 설문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의 통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TV, 라디오·신문이 절대적이며 학교교육은 평균 10~20% 선에 머물고 있다¹⁰⁾.

사회여론과 언론의 영향력 급증은 학교 통일교육의 무력화를 촉진한다. 학교의 교사는 반공 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들로서 의식이 일반인의 의식을 넘어서기 힘든 조건에 있고, 각종 정보 접근에 언론인보다 시공간적, 법률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청소년 학생들에게 호소력 있는 교육자료를 개발하기 어려운 조건에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사회와 언론의 협조 없이 학교와 교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무력화되기 쉬움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청소년 통일교육 문제는 사회여론과 언론에 의한 사회통일교육과 분리하여 논의할 수 없으며, 청소년 통일교육을 바르게 행하기 위한 학교교육과 사회와 언론의 사회교육간의 연계와 협조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2) 통일교육 관련 교과서 내용상의 문제

학교통일교육이 그 영향력을 상실해 가고 있지만, 학교 통일교육은 통일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학생)에 대해 유일하게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통일교육이며, 기존 사회여론의 통일관, 북한관을 압축한 것으로서 바로 우리 사회의 통일교육을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학교 통일교육 과정의 분석은 바로 우리 사회의 통일교육 전반의 분석 틀을 제공하며, 우리 통일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잡는 데 유용하다. 아울러 학교는 여전히 청소년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가장 광범위하고 전체적인 주체라는 점에서 청소년에 대한 통일교육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학교통일교육의 개혁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학교 통일교육과정상의 문제를 교과서를 통해 짚어보자.

9) 위 전교조 설문조사 결과

10) '북한에 대한 정보를 주로 어디에서 얻습니까?'

2000 전교조 설문(2곳 선택) ; 교과서나 선생님 24.7%, 신문, 라디오 48.1%, TV 87.7%, 주변 어른 7.6%, 인터넷 9.9% / 통일을 생각하는 서울교사모임 설문(1997. 2. 중학생 171명 대상) TV, 라디오 66.8%, 신문 15.6%, 학교수업 9.4%, 주변어른 5.5%

교과서의 냉전의식1 : 평화공존의 통일을 부정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통일관'

현행 교과서는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이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로의 통일, 즉 북한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변화시켜 통일을 이루자는 것(결국 흡수통일)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흡수통일 배제, 양 체제 공존의 통일방안을 모색하기로 한 남북정상회담의 합의 내용과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통일관으로서, 북한의 체제 변화나 붕괴 없이는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잠재적 의식을 형성하고 있다. 교과서 구절들을 보자.

“결국 선거를 통하여 통일을 하는 것이 평화통일이군요? 그런데 북한이 지금도 남북대화를 거부하고 있는데, 언제 준비해서 통일을 이룰 수 있을까요?”(초등 5년 사회 157p), “이 방안에서 통일을 추진하는 기본 철학은 자유와 민주를 핵심으로 한 인간 중심의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면서 민족 구성원 모두가 더불어 잘 살아갈 민족공동체를 건설하는 데 두고 있다.”(중2 도덕 265p), “통일한국은 민족 성원 전체의 의사가 반영되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자유와 평등을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국가’를 이루어야 한다.”(중3 도덕 261p), “우리가 원하는 통일은 국토분단에 의해 형성된 2개의 체제를 하나의 민주적 체제로 통합하는 것이다. 이상적인 통일국가의 상태는 한반도에 하나의 주권국가가 존재하는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주권이 하나여야 하고, 국내에서 최고 통치권을 행사하는 정부도 하나여야 한다. 곧 통일은 단일주권국가가 되는 상태를 말한다.”(고 윤리 257p), “우리가 추구해야 할 통일 국가의 이념은 바로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이다.”(상동 276p)

교과서의 냉전의식2 : 북한과의 대화협력을 거부하는 '불신의 북한관'

교과서는 나아가 남북 양 체제가 존속하는 통일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고, 상호 체제 존속을 내세우는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사회주의 체제로의 통일을 위장한 것이라 비판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계속된 적화 야욕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평화는 유지될 수 있을까?”(중2 도덕 225p), “북한이 주장하는 통일이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깃발 아래 남북한이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한다.”(상동 266p), “북한은 공산화에 의한 체제 통일만을 중요한 것으로 강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북한은 민족의 통일성보다는 북한 식의 사회주의 체제로의 통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상동 266p),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은 다음과 두 가지 점에서 우리의 통일정책과 크게 다르다. 첫째, 우리의 통일 정책 가운데 ‘남북연합’ 단계는 통일로 향하는 과도기인 반면, 북한의 ‘연방제’는 하나의 완전한 형태의 국가이다. 북한은 우리의 통일정책이 남북 분단을 영구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오히려 연방제를 완전한 국가로 보는 북한의 통일방안이 분단을 고착화하려는 주장인 셈이다. 그 이유는 두 개의 체도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의 국가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상동 268-9p), “반면에 북한은 걸으로는 연방 국가를 제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확립된 공산 독재 체제로의 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윤리 266p)

북한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에 바탕한 이러한 비판은 최근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적화통일이나 다름없다는 비논리의 연속선상에 있으며, 이런 전제를 까는 한 북과 통일을 위한 어떠한 협상이나 합의도 불가능하다. 오직 북한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전환되어야만 대화와 통일은 가능하다. 상호 체제를 인정하고 그 속에서 ‘화해’하고 통일로 나아가는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교과서는 부정하고 있다.

교과서의 냉전의식3 : ‘남한=선, 북한=악’, 우리 중심의 남북관계관

냉전적 사고는 적과의 대결에서의 승리를 위하여 ‘나’를 미화하고, 적을 ‘악’으로 격하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용인한다. 교과서의 모습이 그러하다.

“그러나 북한의 갑작스런 태도 변화는 우리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사망하는 등 내부의 변화가 많았지만, 남북대화나 통일에 대한 가능성은 별로 진전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초등 5 사회 173p) “남북화해의 분위기 속에서 체결된 1992년

‘남북한 교류협력에 관한 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문’의 이행에도 성실한 자세를 보이지 않았으며,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한 후에도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비판을 계속하고 있다.”(중2 도덕 224p), “1974년 3월 25일 북한은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한다는 미명 아래 북한과 미국 양자회담 개최를 주장하면서 대화의 상대를 남한이 아닌 미국으로 바꾸려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입장은 어디까지나 공산화혁명을 위한 전략 전술의 일환에서 나온 것이며, 판문점 도끼만행사건(1976.8)은 그러한 속셈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고 윤리 263p), “한국이 북한을 불신하게 된 것은 북한의 끊임없는 대남도발 행위와 남북한이 합의한 사항을 북한이 일방적으로 파기해 온 데서 기인한 것이다.”(고 윤리 268p)

1988년까지 남측과 북측간의 휴전협정 위반 건수가 각각 424,356건, 454,605건으로 엇비슷하며¹¹⁾, 최근 공론화되고 있듯이 남한의 북파공작원으로 실종된 인원이 72년까지 7,000명에 이른다는 점 등을 볼 때, 그간의 남북관계는 사실상 보이지 않는 전쟁을 벌여왔던 상태였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북핵위기, 김일성 사망, 미사일 위기를 거치며 남측과 미국측에 의해 북한에 대한 위협이 심각하게 진행되었음을 상기하면 남북의 긴장과 대립을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음이 분명해진다.

이런 상호 관계에서 북쪽에 대한 남쪽의 위협은 숨기고, 북쪽의 위협만을 열거하며 남북대립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북쪽에 전가하는 것은 반복 냉전의식을 강화하여 남북의 화해를 저해할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런 냉전의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간의 남북관계가 소모적인 상호 적대관계였음을 시인하고, 이를 반면교사로 하여 적대관계를 종식하기 위해 남북이 서로 어떠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인지 교훈을 끌어내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냉전의식의 벽은 과거의 우리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것은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로 인식되고 있다. 지금 학교 사회의 분위기가 그러하다.

교과서의 냉전의식4 ; 금기 사항, 북한에 대한 긍정적 평가

‘적’을 폄하하고 ‘나’를 높이는 냉전적 대결 의식은 교과서의 북한 사회에 대한 기술에서도 여실히 나타난다. 냉전시대 북한에 대한 정보가 금기의 영역인 것의 영향으로 교과서에서 북한에 대한 언급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 중학교 2학년 도덕과 등에서 주마간산(走馬看山)으로 북한의 체제와 제도, 주민의 삶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런 간략한 북한 소개도 부정 일변도이다. 북한의 긍정적 측면을 언급한 구절은 하나도 없다. 교과서에서 북에 대한 긍정적 언급은 금기 사항이다.

“북한은 1947년부터 노동자, 사무원, 및 그 부양가족에 대하여 무상치료제를 실시해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 그렇게 못하다. 모든 근로자들은 기본 임금의 1%를 매월 ‘사회보장비’ 명목으로 공제당하고 있으며, 각종 공과금에도 치료비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중2 도덕 241p), “북한은 자유는커녕 인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있다. … 그들은 오랜 집단 생활으로 인해 인간의 보편적인 성격마저도 개조되어 자유와 평등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통제되고 억압된 사회에서 북종과 노예적인 삶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북한 동포들에게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알게 해주는 것은 같은 민족으로서뿐만 아니라 인류애라는 측면에서도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일임에 틀림없다.”(중3 도덕 244p)

일부 구절들만 들었다. 비록 가난하지만, 남측보다 북측이 사회보장 제도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교과서는 이를 긍정하지 못하고 옹색하게 ‘사회보장비’를 걷기 때문에 무상치료제가 아니라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민족의식과 자주성, 공동체를 위한 희생정신에서 남한 주민보다 앞선 북한 주민의 장점은 말하지 않고, 북한 주민은 노예적인 삶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11)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남북화해시대 통일교육자료집」, 2000. 8. p.120 이영희 교수 강의 녹취록 중에서

혹자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나, 사실이라고 그 사회의 일반적인 모습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만일 우리 남한 사회에서 범죄가 매일 발생한다고 그것들만 모아 남한 사회를 설명한다면 남한 사회는 '범죄 소굴'외에 아무 것도 아니게 된다. 좀더 균형 있는 북한에 대한 접근이 요구된다. 북한 사회에 대한 긍정적 언급을 금기시하는 것은 교과서의 전형적인 냉전의식이다.

교과서 냉전의식5 ; 사상의 연좌제

몇 년 전 6차교육과정 중학교 국어교과서에 실린 펠리핀 학자 간수의 글이, 전혀 사상성을 담지 않은 글임에도, 그가 간첩으로 잡혀갔다는 사실 때문에 교육부의 지침으로 긴급히 다른 글로 대체된 일이 있었다. 올해에는 초등학교 2학년 '생활의 길잡이'에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손을 잡은 정상회담 장면 사진을 실었다고 보수 언론에 의해 교육부가 집중 성토를 당한 바 있다¹²⁾. 김정일 위원장 사진이 실린다는 것 때문이었을 것이다. 정상회담은 남북화해의 상징이며, TV를 타고 김 위원장의 모습이 남한 국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상황에서 그런 사진을 실는 것 자체가 논란이 되는 것이 학교 통일교육의 현주소이다.

이 두 사건은 교과서의 연좌제를 상징적으로 나타내준다. 교과서는 불과 친화력을 가진 인사를 배척한다. 그런 사람의 글이 실려서도 안 될 뿐더러, 그런 인물의 행적을 긍정적으로 언급해도 안 된다. 일제하에서 친일행각을 한 사람들은 교과서에 등장할 수 있지만, 민족의 해방을 위해 나름대로 투쟁하여왔던 사회주의 계열 인사들은 교과서에 등장할 수 없다. 6차 교육과정 개편에서 카프 문학가들의 해금된 작품 몇 편이 국어교과서에 등장했을 뿐이다. 이런 사상 연좌제에 의해 교과서의 현대 부분은 민족 문화의 절반만을 담고 있다.

우리는 일본 우익이 일제 침략기의 정신대 사건 등 일본의 만행을 교과서에서 지우려 한다고 분노하고, 비판한다. 그러나 우리 교과서는 우리의 부끄러운 면을 외면하고 있을 뿐더러 역사적으로 평가받아야 할 인물과 작품마저 '좌익적'이라는 이유로 교과서에 올리지도 않고 있다. 우리가 일본을 비판하는 잣대를 들이대면 이것은 분명 교과서 왜곡이다. 그러나 교육계에선 이를 당연시한다. 교과서 내용 구상에 보이지 않는 냉전 의식이 작용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교과서에서 사라진 반쪽의 역사와 문화를 되살리는 것은 학교 교육의 냉전 문화를 청산하는 또 하나의 과제이다.

(3) 학교 통일교육과정상의 문제

· 체제비교 중심의 내용설정

통일교육과정상의 문제점은 첫째로 통일교육 내용 대부분이 분단과 전쟁의 책임을 묻는 내용과 남북체제비교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다.

일반 상식과 달리 교과서에서 북한 사회를 객관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은 아주 빈약하다. 중2 도덕의 소단원 '북한의 현실', 중1 사회 소단원 '북부지방의 생활', 고 교련 소단원 내 '북한의 실상', 초중고 국어 소단원 각 하나 (남북의 언어 차이) 정도에 불과하며 그중 가장 내용이 많은 중2 도덕의 '북한의 실상'도 총 23쪽에 불과하다. 이렇게 빈약한 북한 사회에 대한 내용조차 부정적 이미지 일변도여서 북한에 대한 개관적 이해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북한 사람들의 모습이 사상된, 큰 담론의 통일교육 내용은 우선 학생들의 통일 문제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 사상, 이념, 체제, 통일 방법 등 통일 문제 전문가들도 명쾌히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은 당연히 학생들에게 어렵고, 접근하기 힘든 문제로 인식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과적으로 통일 문제 자체를 머리 아프고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을 갖게 했고,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떨어뜨렸다. 학생들의 북한에

12) 이 사진이 들어갔다고 교과서가 획기적으로 달라진 것은 아니다. 교과서의 내용적 흐름에는 큰 변화가 없다. 이는 교과서를 지도하는 지침으로 교사들에게 배포되는 '교사용 지도서'를 보면 금방 확인된다. 문제가 된 초등학교 2학년 교사용 지도서를 보면 자유총연맹 발행 자료, 수년 전의 통일부 발행 자료를 인용하여 북한 사회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수년 전의 이런 자료들이 탈냉전적 사고를 담고 있을 리 없다.

대한 주요 관심사는 체제, 이념, 제도 등보다는 북한 주민의 생활과 문화에 집중되어 있다¹³⁾.

다음으로 남북의 차이를 부각시켜 통일이 힘들 것이며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을 심어 주고 있다. 사상, 이념, 체제, 통일방안 등 통일교육에서 주로 다루는 문제들은 상식적으로 쉽게 남북의 합치점을 찾기 어려운 문제들이고 따라서 해결되기 어려운 차이를 안고 있는 남북이 '하나로' 통일을 이루기는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밖에 없다.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바탕이 되고 있는 것이다.

셋째로 이러한 체제 비교 중심의 교육내용은 북한 주민을 이방인으로 여기는 정서를 심어 주고 있다. 북한 주민의 삶과 문화가 사상된 추상적 제도, 이념의 차이만을 부각하는 것은 북한 동포를 낯선 사람들로 인식하게 하여 '정서적 거리'를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이는 통일이 현실화되었을 때 정치적 통합 못지 않게 중요한 사회·문화적 통합이나 심리적 차원의 인간 통합에 대한 고려를 상대적으로 경시하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 도덕과 중심의 교육과정

학교 교육과정상의 또 다른 중요한 문제점은 도덕(윤리)과 중심의 편제이다. 사회, 역사, 지리, 국어 등의 일부 교과에도 통일교육 관련 내용이 있으나 교과의 아주 부차적인 내용으로 자리잡고 있을 뿐이다. 국책 과목으로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시되는 국어과의 경우조차 직접적인 통일 교육 관련 내용은 남북 언어의 차이에 관한 것이 중학교 한 단원, 고등학교 한 단원일 뿐이며, 간접적으로 관련된 문학 작품이 몇 편 실려 있을 뿐이다.

이렇게 통일 교육 교과와 내용이 한정됨으로써 학교 통일 교육의 교육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더러 교사, 학생 모두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교육 활동 영역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고 있다. 학교에서 한 달에 한 두 번이나 통일 관련 수업이나 이야기를 하는 교사들이 10% 선에 그치고 있는데, 절대 다수의 교사들이 통일 교육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원인을 주로 교과목에 관련 내용이 없거나, 잘 모르기 때문이었다¹⁴⁾.

(4) 교수 학습방법상의 문제점

그간의 통일 교육은 인지중심의 주입식 교육이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의식과 신념을 내면화하기 위하여 일방적인 방법으로 교육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비판적인 토론이나 개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없었으며, 통일 교육과정의 구성에 있어서 교육 주체의 자율성이 극히 제한되어 교사의 능동적인 교육 내용·교수 학습 방법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해 강의 중심의 주입식 수업을 벗어나지 못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저하시키고, 통일 교육 교육적 효과를 떨어뜨리는 주요한 교육적 문제의 하나이다. 최근 토론식 수업이나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수업 등이 일부 시도되고 있으나 교육방법의 개혁을 근본적으로 규정하는 교육 내용의 전환과 자료의 대폭적인 공개가 선행되지 않으면 한계를 넘기 어려울 것이다.

(5) 타성화된 통일 행사의 문제점

학교통일교육은 형식화를 넘어 완전히 타성화되어 버렸다. 예전에 반공교육의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었던 반공응변대회가 통일 말하기 대회로 이름만 바뀌어 거의 모든 학교에서 진

13) 전교조 설문 : '북한에 대해 가장 알고 싶어하는 것은?' - 북한 지도자에 대해 13.6%, 북의 정치, 사회, 사상에 대해 10.6%, 북한 주민의 생활모습에 대해 32.1%, 북한의 문화예술에 대해 10.2%, 북한의 교육과 학교 생활에 대해 16.8%, 북한의 통일 정책에 대해 9.3%,

민화협 설문 : '북한 학생들과 컴퓨터 채팅을 한다면 가장 먼저 묻고 싶은 사항은?'-학교생활 29.1%, 가족관계 3.6%, 이성관계 18.3%, 취미생활 14.8%, 통일문제 19.7%,

14) 서울 지역 교사 175명에 대한 설문 결과(통일을 생각하는 서울교사모임, 『직녀에게 5』, 1996. 10. p22) / 1995년 전국교육자 86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남북통일 대비 교육 준비에 관한 교육전문가의 의견조사연구 보고서』, 1996,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통일교육연구위원회, 참조)

행되고 있다. 표어, 글짓기, 포스터 그리기 역시 마찬가지이다. 학생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똑같은 것을 되풀이하고 있고, 이제 지명된 두세 명 외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행사가 되어버렸다. 학생들의 의식 변화와는 아무 관련도 없는 이런 행사들이 '통일교육'이란 이름으로 진행되고 실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이런 형상은 학교 통일교육 행사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일부 학교에서 행사는 강연이나 탐방 역시 타성화 되고 있다. 강연은 지역 안보협의회 인사나 탈북자(또는 귀순용사) 초청하여 거의 아무도 듣지 않는 가운데 일방적으로 진행되기 일쑤이고, 탐방은 대북 적대감을 부추기는 전적지, 땅굴 견학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3. 청소년 통일의식

남북 정상회담으로 인한 청소년들의 인식상의 충격은 어른에 비해 훨씬 낮다. 2000년 10월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초·중고 학생 179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바에 의하면, 남북정상회담, 이산가족 상봉 등을 보면서 당황했다는 반응은 13.7%, 혼란스러웠다 12.8%, 불안했다 12.9%에 그쳤다. 이는 청소년들이 매우 유연한 사고를 갖고 있으며, 민족화해 교육으로써 청소년들을 미래의 민족화합의 동량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해준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청소년들에게는 민족화해 교육과 관련하여 몇 가지 교육적으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의식 변화가 발견된다.

(1) 무관심과 부정적 의식의 증대

1999년 11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업시간에 남북문제가 나오면 다른 내용보다 관심있게 듣는다'는 학생이 44.8%에 불과하였으며¹⁵⁾, 남북정상회담으로 사회 분위기가 고조된 상태에서 조사한 전교조 설문 결과에서도 '방송이나 수업시간에 북한문제나 통일문제가 나올 때 관심을 기울이는 편'이 74.2%에 그쳤다. 한국청소년상담원의 설문에서도 '관심 없다'는 비율이 37.1%, '관심은 있으나 자신과는 멀게 느낀다'는 반응이 48.2%나 되었으며, TV에서 통일, 북한 관련 프로그램이 방영될 때 채널을 돌리거나 TV를 끄겠다는 학생이 57.8%에 이르렀다. 청소년들이 오락프로그램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지만, 이런 양상은 청소년들이 통일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지 않음을 말해주는 것으로서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점을 제기한다.

통일에 대한 부정적 시각 역시 상당하다. 2000년 7월 전교조 설문에서 의하면 통일이 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61.6%였지만, 통일이 돼도 좋고 안돼도 좋다는 의견이 26.6%, 가급적 안 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10%였다. 부산지역 청소년신문인 '우리들신문'이 남북정상회담 직후 부산지역 14개 중·고교생 2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일의식 설문조사 결과 66.5%가 '반드시 통일이 이뤄져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33.5%는 경제적 이유 등을 들어 '통일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고 한다.¹⁶⁾ 98년 교육개발원 설문조사 결과도 통일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는 의견이 63.7%에 머물렀으며¹⁷⁾, 2000년 10월 청소년상담원의 설문에서도 33.3%가 통일은 돼도 좋고 안돼도 좋거나 안되는 것이 낫다는 반응을 보였다. 결국 학생들의 1/3 정도는 통일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1/3이면 청소년 사이에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충분한 수란 점에서 통일교육과 관련해 심각성이 있다.

이러한 부정적 통일의식은 학생들이 통일 사회의 전망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통일사회에 대한 부정적 전망은 1998년 한국교육개발원의 설문조사에서는 58.9%, 1999년 울산교육청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58.5%¹⁸⁾,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전교조 설문

15)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청소년 통일의식 여론조사 결과보고」, 1999. 11. (전국 중고등 학생 1500명 대상 설문 조사; <http://www.kcrc.or.kr/>)

16) 2000년 6월 29일 연합뉴스

17) 교육개발원, 「제5회 통일대비 교육 포럼, 통일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의 과제」, 1998. 6. p43(설문 조사대상 : 전국의 중고대학생 2700명, 조사시기 98년 5월)

에선 30.2%였다. 이는 북한의 경제난에 관한 부정적 보도, 통일비용에 관한 부정적 보도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

60~70%에 이르는 무관심, 1/3에 이르는 부정적 정서면 청소년에 대한 진지한 통일교육은 행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2) 당위적 인식에서 현실적 인식으로의 변화

전교조 설문 결과 학생들은 통일을 바라는 이유로(2개 복수응답) '경제 대국이 되기 위해서'(48.4%)와 '전쟁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30.7%) 등 현실적인 이해를 반영한 답변과 '한민족이기 때문'(40.7%)와 '이산 가족 문제 해결'(34.2%) 등 당위적 측면이 비슷하게 나왔지만, 통일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북한이 싫어서'와 '공산주의자와 살 수 없어서'와 '북한이 침략자'라는 응답은 모두 합해 12.5%밖에 안 되는 반면에 현실적인 측면인 사회 혼란 우려(50.4%)와 경제적인 지원 때문(46.0%)과 변화가 싫어서(27.5%)가 123.9%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98년 교육개발원 설문에서는 통일세 징수에 대하여 다소 반대 27.4%, 매우 반대 22.0%로서 반대 의견이 절반에 이르렀다. 청소년 상담원 조사에서는 남북교류에 대한 염려로서 '우리가 가난해질지 모른다'고 염려하는 학생이 44.8%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당위적이고 정서적이며 관념적으로 통일문제를 보아왔던 기성 세대와 달리 청소년들은 통일 문제를 현실적인 이해관계로서 바라보는 입장이 증대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경향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예컨대 청소년 상담원 설문에서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무엇이 가장 큰 어려움인가 하는 질문에 언어 및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초등 43.2%, 중학교 25.1%, 인문고 5.9%로 줄어들지만, 국가경제적인 어려움은 27.2% 40.3%, 31.2%로, 사회 전반적인 혼란은 5.1%, 9.5%, 26.5%로 늘어나고 있다. 학생들이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고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제적 어려움, 사회혼란을 축으로 하여 형성된 청소년의 통일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남북화해의식'으로 승화 발전시켜 나가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다.

(3) 북한에 대한 우월 의식과 배타 의식의 심화

전교조 설문 결과 학생들이 '북한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예, 아니오 응답)는 '우리과 같은 핏줄의 겨레'가 50.6%로 절반에 불과한 반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사는 후진사회'는 무려 59.4%에 이르렀다. 반면 '자기 나름의 문화를 가진 인간 사회'는 23.3%, '자주성이 있는 주체적인 사회'는 35.7%에 그쳤다. 청소년 상담원 조사에서도 북한 청소년에 대한 이미지가 촌스럽다 73.8%, 축하고 불쌍하다 48.9%, 시키는대로 행동하는 로봇같다 54.5%에 이르렀으며, 꿈과 고민, 갈등이 우리와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라는 반응은 38.6%에 그쳤다. 98년 교육개발원 설문(4지 선다형 응답)에서도 북한 주민을 '우리과 같은 동포'로 생각하는 비율이 45.9%에 그친 반면 '불쌍한 사람'이라는 인식은 49.4%에 이르렀다. 하지만 북한 사회나 주민을 공포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우는 매우 낮았다.¹⁸⁾

청소년 상담원 조사에서 최근 남북화해 분위기를 보면서 54%의 학생들이 북한의 속마음이 의심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답했으며¹⁹⁾, 통일 이후나 자유왕래 시 직장 발령 등으로 북한 지역에 가서 살겠느냐는 질문에 전교조 설문에서는 '가능한 한 안 갈 것이다' 33.9%, '절대 가지 않을 것이다' 16.2%로 절반이 부정적이었고, 교육개발원 설문에서도 '가고싶지 않다' 20.2%, '결코 가지 않을 것이다' 7.2%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들의 대북 적대인식이 대폭 줄어든 반면, 대북 우월 의식과 배타적 의식이 급속히 증대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사회 혼란을 이유로 통일을 반대하는 의식 또한 이러한 배

18) 인터넷 한겨레 신문 99. 10. 7 (울산교육청이 울산 중학생 4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 결과)

19) 전교조 설문 : '이상한 사람들이 사는 비정상적인 사회' 12.6%, '호전적인 사람들이 사는 무서운 공포사회' 21.8%, 교육개발원 설문 : 무서운 사람 2.9%

20) 인문계 고등학생의 경우 이런 의심이 들었다는 학생이 64.5%에 이르고 있다

타적 의식과 관련이 깊다고 생각된다.

(4) 체제 통일론적 시각과 북한에 대한 편견과 무지

교육개발원 설문 결과 통일 이후의 국가 체제로 '혼합체제'(16.2%)나 '제3체제'(8.6%)는 25%에 머무른 반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74.3%에 이르렀으며, 전교조 설문에서도 현실적인 합의통일 방법으로서 '제3체제로의 통일'(11.2%), '남북체제를 그대로 두고 통합국가 건설'(12.3%)이 23.5%에 그쳤다. 반면에 '남한자본주의 체제로의 통일'이 26.0%, '통일을 당분간 미루고 장기간 남북교류후 남북체제가 비슷해진 후 통일'이 43.6%에 이르렀다(장기간 교류 후 비슷해질 남북체제는 사실상 남한 체제와 유사한 체제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설문 결과 자신이 '북한의 실상을 아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25.9%에 머물렀으며, 필자가 학교에서 고1, 2학년 6개 학급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면서 북한의 나라이름과 제2외국어가 무엇인지, 의무교육기간이 몇 년인지 물었을 때 제대로 대답한 학생들은 한 반에 1~2명에 지나지 않았다. 이렇게 북한에 대해 무지한 상태에서 청소년들은 북한에 대리는 제 판단은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편견과 고정관념에 치우친 것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이러한 통일외식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 것일까?

90년대 이전의 청소년과 달리 90년대의 청소년들은 우리 사회의 문화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그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 90년대 청소년들은, 미디어 문화가 급속히 발달함에 따라 미디어 문화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그 영향을 매우 강렬하게 받고 있으며, 대부분 70~80년대의 핵가족 문화, 그리고 익명의 도시화 환경에서 사회적 규제와 가정교육의 부재 속에 자랐지만, 급속히 발달한 소비문화의 주제로 등장하였으며,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향락적, 비도덕적 사회문화에 직접 노출되어 그 영향을 받고 있다²¹⁾.

이로 인해 현실 생활에서는 자본주의화, 개인주의화되면서 관념적으로는 전통적 도덕성과 당위성, 공동체적 정서를 강하게 갖고 있는 어른들과 달리, 청소년들은 언론과 자본, 그리고 향락적 도시문화가 보여주는 기성 사회의 모습을 급속히 흡수하여 사회적, 윤리적, 공동체적 문제에 대한 관심이 약화되고 개인주의적, 물질주의적 경향이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의 모습이 그대로 청소년의 통일외식에 투영되고 있다.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의 저하는 사회적, 윤리적 문제에 대한 관심의 저하와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확산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동족의식, 적대의식, 공포의식이 줄어들고, 우월 의식이 증대하는 것, 그리고 통일에 대한 반대의견이 증대하는 것은 물질주의적 가치관의 연장선상에 있다. 학생들은 미디어에서 유포한 통일비용 논란, 통일 후유증 논란에 깊숙히 영향을 받고 있다. 학생들의 통일관, 북한에 대한 무지와 편견, 배타성은 기성 사회의 통일관, 왜곡된 대북 의식, 타자에 대한 배타적 사회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남북화해 교육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남북화해시대는 그 이전의 냉전시대와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의식을 요구한다. 남북화해시대의 통일교육은 이제 이런 냉전적 사고 틀에서 벗어나 남북의 평화 공존과 화해를 위한 통일교육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이런 교육은 먼저 남북의 평화 공존과 화해협력을 긍정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 상호 이익을 위해 적과 화해하고 타협하고 협력하는 탈냉전시대의 생존 방식을 남북관계에도 적용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의식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1) 도시에서 보면 청소년은 학교와 가정 한 걸음만 벗어나면 향락의 유흥가, 여관, 술집 등을 만나며, 성인만화, 비디오, 영화 등을 언제든지 접할 수 있다. 농촌 지역으로 가도 세칭 러브호텔 등 유사한 현상이 전국화되고 있다.

아울러 이런 교육은 우리에게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남북의 대결과 긴장이 남북 모두에게 얼마나 해악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이런 인식에 바탕할 때 남북의 화해가 일방적인 시혜가 아니라 상호 이익을 위한 것이며, 21세기 민족의 생존을 위한 필연적인 선택임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냉전적 대결의식에서는 상생을 위한 양보와 타협이 ‘굴복’이 되지만, 화해협력 의식에서는 ‘상호 이익’이 된다. 이런 의식 전환 없이 남북화해시대를 맞이할 수는 없다.

(1) 무엇을 교육할 것인가

분단의 피해와 폐해를 구체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무관심과 통일에 대한 부정적 정서의 증대는 분단을 자신의 삶과 연계시켜 생각하지 못하거나 통일이 자신에게 손해가 될 것이라고 느끼는 데 주요 원인이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런 청소년들에게 분단과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고, 부정적 정서를 순화하기 위해서는 분단이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과 손해를 미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 교육해야 하며, 통일이 이런 아픔과 손해를 어떻게 상쇄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어야 한다.

한반도 전쟁의 위험성과 그 예상되는 피해, 분단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 분단 비용과 통일비용, 분단으로 인한 정신적 문화적 폐해 등이 통일교육의 주요 내용으로 잡혀 교육되어야 한다.

민족의 삶에 대한 역사적 안목을 갖게 교육해야 한다.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무관심과 부정적 정서는 개인적인 이해관계로서 분단과 통일 문제를 바라보는 데도 중요한 원인이 있다. 이는 현재 학교교육에서 학생들의 사회의식과 역사의식을 제대로 형성해주지 못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데, 학생들이 분단 극복의 문제를 민족의 과거, 현재, 미래의 삶과 연관하여 사고하고 판단할 때, 그리고 그런 민족의 삶과 자신의 삶의 관계를 제대로 인식했을 때, 통일교육은 신념과 의지를 형성하는 단계로 발전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올바른 역사의식의 형성이 필요하다. 올바른 역사의식은 민족자주의식의 뼈대이다. 그런 의미에서 민족화해교육은 올바른 민족사 교육을 통해 올바른 역사의식을 형성하는 데로 발전해나가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일제하 민족해방운동과 분단 50년사를 반쪽의 역사로 만들어온 남북의 역사교육은 시대 정신에 맞게 재편되어야 한다. 역사교과서에서 사라진 반쪽의 역사가 되살아날 때 민족의 통일은 완결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화해와 공존이 남북 상호 이익임을 교육해야 한다

냉전적 사고는 적과의 공존을 허용하지 않지만, 탈냉전적 사고는 상호 이익을 위해서라면 적과 화해하고, 타협하고 협력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지금 학생들에게 남북화해에 대한 부정적 정서는 남북교류 또는 통일이 ‘우리만 손해보는 일이다’는 의식에서 비롯된다. 이런 의식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남북의 화해와 공존이 남북 모두에게 이익임을 구체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 정착이 우리 남한의 생존조건이기도 하며, 대북 지원 자체도 우리의 일방적인 시혜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연적인 선택인 평화를 위한 선택으로서 우리에게 현실적으로도 이익이며, 이후 민족 경제를 일구는 장기적인 이익임을 교육해야 한다.

여기에는 학생들에게 익숙한 사고인 1:1 상호교환이 손해보지 않는 것이라는 의식을 ‘내가 하나의 이익을 얻고, 상대가 10개의 이익을 얻어도 상호 이익으로서 손해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합리적인 인식을 갖게 해주는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북한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형성하는 교육을 해야 한다.

학생들의 대북우월의식은 북한 주민에 대한 폄하 의식이나 차별적 태도로 발전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으며, 이는 남북교류의 진전과 통일시 남북 주민간의 새로운 갈등을 야기하여 통일의 걸림돌을 놓을 수 있다. 이것은 이미 중국 연변 조선족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서

확인된 바 있다. 남북화해교육은 이런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우월의식과 북에 대한 차별적 태도를 해소하려는 교육을 해야 한다. 이는 북한과 북한 주민의 체제와 문화, 삶의 방식에 대해 인정하고, 이를 존중하는 자세, 태도를 갖도록 하는 교육이다.

이런 교육의 기초는 나와 다른 타인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생활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다.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존중할 수 있는 생활문화를 만들어가려는 노력은 통일에 대비하는 중요한 교육 방침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이런 문화가 우리의 보편적인 문화로 자리잡을 때, 남북의 상호 공존에 의한 합의 통일은 사회적인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남북관계, 북한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는 교육을 해야 한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이지만, 학생들의 남북관계나 북한에 대한 편견은 적지 않다.

그간의 교육은 남북관계를 '북=폭력세력, 남=평화세력'이라는 흑백논리에 따라 이루어져왔고, 때문에 학생들의 선입견이 적지 않다. 남북관계는 기본적으로 상호관계로서, 그간 남북은 서로 적대 행위와 비난 행위를 일삼아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이런 사실관계를 올바르게 전달하지 않고, 남측의 행위는 숨기고 북측의 행위만을 강조하는 방식의 교육은 북측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만드는 출발점이다. 이는 남북관계에서 우리 중심의 주관적 사고를 하게 만드는 토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남북화해교육은 그간의 상호 적대행위에 대해 솔직히 교육하고, 그로부터 이후 적대행위 중지와 화해의 중요성을 교육해나가는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또한 그간의 교육은 북한에 대해 부정적인 측면만을 교육해 학생들의 북한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심화시켜왔다. 남북화해교육은 이렇게 해서 형성된 왜곡된 북한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북한 사회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그간 의식적으로 기피하여 온 북한의 장점과 긍정적 측면을 인정하는 과감한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북한 사회의 장점, 긍정적 측면을 부정하는 자세로는 올바른 북한 이해교육은 이루어질 수 없다. 나아가 북한 이해 교육은 북한 주민의 삶과 문화를 북한 주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생각해보게 하는 훈련을 곁들여야 한다. 역지사지의 자세와 태도는 북한 이해를 위해 필수적인 사고방법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이런 연습을 하게 해야 한다.

끝으로 북한 사회에 대한 비판은, 남한 중심적인 시각이 아닌, 세계 보편적인 시각에서 남북을 상호 비교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교육해야 한다. 이것은 남한 사회와 북한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무의식적으로 '이중잣대화' 되어 있는 의식구조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의식구조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이 될 것이다.

민족화해교육은 민족 자주문화교육과 결합되어 이루어져야 한다.

한반도 주변 4대 강국이 한반도의 통일보다는 평화적 분단체제 유지에 이해를 같이하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가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족의 자주적 힘과 민족의 단결이 요구된다.

기존의 통일교육은 이 면에 별로 주목하지 못해 왔다. 오히려 세계화, 미국과의 공조 등을 이유로 이와는 역방향으로 교육해온 측면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이제 통일교육은 분단을 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하는 힘을 형성하기 위한 민족자주교육에 힘을 쏟아야 한다.

민족자주교육은 먼저 민족문화교육으로부터 출발될 수 있다. 민족문화야말로 우리 사회의 과거 역사와 현재가 응축되어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민족문화에 접하고 그 정체성을 체화하여 갈수록 학생들의 역사적 사회적 시야는 넓어지고, 민족의 최대 과제인 통일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을 가능성은 커진다. 그런 의미에서 민족문화에 대한 교육은 통일교육의 기초를 형성하는 중요한 교육이라 할 것이다. 학교에서 거의 실종된 민족문화교육의 부활과 확산을 위한 노력은 이제 통일교육의 중요한 몫이다.

(2)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체제비교 중심 교육에서 생활문화 중심 교육으로

앞서 말했듯이 이념, 체제, 제도 비교중심의 통일교육은 대북 우월의식을 확대하는 한편,

통일을 어렵게 여기는 경향을 확산시키고, 북한 동포와의 정서적 거리를 확대재생산하고, 통일교육에의 흥미를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런 체제, 제도 비교 중심의 통일교육은 이제 생활문화적 접근을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생활문화적 접근이란 분단의 폐해가 우리의 생활, 정신 문화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북한 주민의 생활 문화는 어떠한지 하는 것을 중심으로 통일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이런 접근을 통해 학생들은 통일의 문제를 자신의 삶과 연결하여 해석할 수 있고 북한 주민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생활문화적 접근은 북한 주민을 정서적으로 가깝게 다가오게 하는 교육일 뿐 아니라 청소년의 통일의식에 맞는 눈높이 교육이기도 하다. 청소년들의 관심이 문화 예술 등 생활문화적인 것에 집중되어 있을 뿐 아니라, 참여를 통한 교육이 교육적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데, 이런 접근이 이루어질 때 학생들의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쉽게 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지식 중심 교육에서 평화와 타자 존중의 가치관 교육으로

기존의 통일교육은 지식 중심 교육이었다. 학생들은 수업이나 평가시간에는 통일의 당위와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평상시나 설문조사시 이를 부정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통일교육이 지식 전달 중심으로 진행된 결과이기도 한다.

통일로 나아가는 데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과 ‘자세’와 ‘태도’이다.

통일 문제를 자신의 삶과 무관하게 여겨 아예 관심을 두지 않거나 자신에게 경제적으로 손해라는 이유로 통일에 대한 거부감을 갖는 학생에게는 지식 전달에 의한 변화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통일의 문제를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삶과 연결하여 인식하게 하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 분단과 전쟁, 평화와 화해, 통일의 소중한 가치를 삶의 자세 문제로서 깨닫게 하는 것이다. 즉 평화와 통일의 문제를 자신의 삶의 철학 문제로서 느껴지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의 대북 우월 의식을 극복하게 하는 문제 역시 마찬가지이다. 우월 의식을 ‘지식’으로 극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우월 의식은 삶 속에서 타인을 자신보다 어떤 조건이 못하다고 열등하게 대우하고 차별하는 생활문화의 부당함을 깨닫고 타인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서로 도우며 살아갈 수 있는 자세태도를 형성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통일교육은 다름을 인정하고, 타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가치관 교육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통일교육이 가치관 교육으로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통일교육에 체험학습과 실천학습을 결합하는 것이다. 땅굴이나 전적지가 아니라 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현장이나 분단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 보고 느끼게 하는 체험활동, 북한 친구 돕기에 직접 참가하는 실천활동 등의 활동들은 학생들의 건강한 통일의식을 형성하는 힘이 될 것이다.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간의 주입식 지식교육은 통일교육의 주된 방법이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통일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통일교육의 방법이 다양화되어야 한다.

실천활동, 조사활동, 토론활동, 놀이학습, 소설 쓰기 등등 일반 교과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교육방법이 통일교육에서도 적용되고 개발되어야 한다. 특히 분쟁지역에서 발전해온 평화교육, 화해교육의 교육방법들이 우리 상황에 맞게 재구성되어 주요한 교육방법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요즘 학생들은 영상 세대이기 때문에 정보전달과 이미지 형성을 위한 교육에서는 영상 자료의 활용이 필요하다. 특히 남북관계나 북한에 대한 인식에서는 생생한 영상의 효과가 뛰어나므로 이런 교육자료의 개발과 보급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5. 언론과 교사에 의한 남북화해교육 운동을 기대하며

‘통일을 생각하는 서울교사모임’은 그간 기존의 통일교육을 비판하고 새로운 통일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면서 평화, 화해를 화두로 하는 통일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모색해왔다. ‘차이와 차별’을 주제로 한 통일교육과정을 마련해보기도 하고, 겨레사랑, 평화사랑 청소년 통일 캠프를 열었고, 사이버 통일백일장도 열었다. 그리고 비록 작은 경험들이지만, 통일을 생각 하는 서울교사모임의 이런 노력들은 평화와 화해를 위한 통일교육의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물론 기존의 통일교육의 틀과 방법을 벗어나 새로운 통일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개척해 가는 데는 넘기 어려운 벽이 있다. 자유로운 통일논의에 족쇄를 채워온 국가보안법은 물론 통일 교육과정의 구성에 있어서 교육 주체의 자율성이 극히 제한되어 교사의 능동적인 교육 내용·교수 학습 방법 개발이 제한될 수밖에 없고, 법률적, 시공간적 제약에 의한 정보의 부재는 이러한 작업을 엄두도 내기 어렵게 한다. 더구나 수십 년간 관행화된 학교 통일교육의 타성은 교사들의 의식마저 타성화시키면서 그 어려움을 더해주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으로 형성된 남북화해분위기는 이러한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편견과 무지와 고정관념을 깨뜨릴 수 있는 자료들이 언론과 방송에서 적지 않게 제출되고 있으며, 통일 관계자들의 인식도 변해가고 있다. 우리들이 이야기해온 통일교육의 큰 방향에 대해서도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들이 형성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라고 생각한다. 평화와 화해를 위한 통일교육을 일반화하고, 대중화하여 남북화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민의식을 형성하는 과제가 통일교육의 몫으로 남겨져 있기 때문이다. 남북화해와 통일 시대를 살아갈 청소년 교육을 책임진 학교에서의 통일교육 몫은 더 큰 짐이기도 하다.

우리는 우리 교사들의 역량이 이 짐을 감당할 만큼 크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통일 의식 측면에서 우리 교사들은 일반 국민들의 수준을 넘을 수 없는 조건에 있었고, 따라서 지금도 그 한계의 벽을 스스로 넘기에는 적지 않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때문에 평화와 화해를 위한 통일교육에 이제 시민사회의 지원과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 특히 언론의 협조를 절실히 필요로 한다. 교사들의 노력과 더불어, 시민 사회에 의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통일 체험활동 공간과 학습 공간이 열리고, 언론에 의해 다양한 통일교육 학습자료가 개발되어 학교 안팎에서 평화와 화해를 위한 통일교육 노력이 들불처럼 일어나길 간절히 바란다.

◎방북 프로그램 제작 사례 ①

【KBS 2000년 한민족 특별기획 ‘백두에서 한라까지’】

김규태 (KBS TV제작센터 기획제작 차장)

KBS가 지난 추석인 9월 12일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방송한 <2000년 한민족 특별기획 ‘백두에서 한라까지’> 백두산에서의 생방송과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동안 진행한 <뉴스특보 및 9시 뉴스>의 백두산 연출을 담당했으며, 현재 매주 화요일 밤 10시부터 방송되는 <북한 리포트 ‘서울에서 평양까지’> 프로그램을 맡고 있습니다.

본인은 백두산에서의 생방송 연출을 맡으면서 나름대로 준비한 것 외에 지금까지 남북관계에 있어서 깊이있게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워크샵의 주제인 ‘올바른 통일의식 형성을 위한 방송의 역할’이라는 전문적인 분야보다는 백두산 생방송에 참여한 동료 제작진과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이번 남북 공동제작 <2000년 한민족특별기획 ‘백두에서 한라까지’>생방송을 겪으면서 본인이 경험한 것을 덧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송사상 최초의 공식 방북 제작

KBS가 지난 추석인 9월 12일 백두산에서 생방송으로 진행한 <2000년 한민족 특별기획 ‘백두에서 한라까지’> 생방송은 남북 최초의 공동 제작이라는 점에서 남북 방송교류의 획기적인 장을 열었다.

남한 방송 제작진이 자체 중계차와 위성 장비를 가지고 처음으로 북한의 백두산에서 시도된 사상 첫 생방송은, 남북 방송인이 함께 참여해 백두산·한라산·서울을 3원 연결 생방송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를 위해 KBS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비자를 받고 취재팀과 생방송을 위해 중계기술진을 직접 북한에 보내 남북간에 현지 방송인들이 공식적으로 교류하는 첫 케이스가 되었다.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전의 북한 관련 프로그램들은 북한 조선중앙방송을 수신해서 부분적으로 편집한 것이거나, 개인적 차원의 방북과정에서 촬영한 비디오를 방송사에서 입수하여 방송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제작형태가 남북 정상회담을 전후해서 등장했는데, 중국의 조선족 방송사나 프로덕션을 통한 간접제작이었다. KBS의 경우 중국의 요녕 국제 TV등을 통해 <김일성 종합대학>이나 <북한의 여성> <북한영화 50년>을 6월에 방송한 적이 있었고, 지난 8·15와 추석 때는 특집으로 <북녘땅 고향은 지금>이 KBS의 제작 주문으로 북한의 조선중앙TV에서 촬영한 내용을 편집하여 방송하였으며, 10월부터는 동일한 제작 방식으로 <북한리포트 ‘서울에서 평양까지’>가 정규 프로그램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북녘땅 고향은 지금>이나 <북한리포트 ‘서울에서 평양까지’>도 일종의 남북 공동제작이라고 할 수 있으나, 남북 방송인들이 직접 만나 함께 작업을 했다는 의미에서 <백두에서 한라까지>가 실질적인 최초의 남북 공동 제작 프로그램이다. 이번 생방송에는 PD와 기자, 중계기술팀 등 22명의 KBS 제작진과 20여명의 북측 조선중앙TV의 방송관계자들이 참여하였다. 이 방송은 남북의 방송인들이 함께 힘을 모아 ‘백두와 한라’로 상징되는 남과 북의 시작과 끝을 이어줌으로써 전파로 분단 극복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생방송의 제작방법은 남쪽의 KBS 제작진이 북한에서의 직접 촬영·제작과 남북 공동제작(북측 촬영, 남측 기획·편집·제작) 두 가지 방법을 원칙으로 하였다. 생방송의 기본구성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생방송 3원 연결 : 백두산 · 한라산 · 서울을 연결하는 3원 생방송으로 KBS 아나운서가 진행하고, 북측 방송원 및 어린이, 역사학자, 백두산 전문가 등이 출연한다.
- 남북 어린이 새 천년 희망 : 북측의 백두산 삼지연 인민학교어린이들과 남측의 제주도 서귀포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새 천년 소망을 담는다
- 한민족 평화 · 공존을 염원하는 백두와 한라에서의 풍물놀이 및 노래 · 춤 공연
- 백두산과 한라산의 희귀 자연 소개
- 백두대간의 우리 산하 : 북의 3대 명산 비경 (백두산, 묘향산, 칠보산) · 남의 3대명산 비경 (한라산, 지리산, 설악산) 소개
- 남북/북남의 10대 문화유적 소개
- 고구려 고분벽화 등 북측의 수준 높은 문화유산을 소개
- 여기는 평양입니다 : 평양의 문화유적, 관광명소, 음식점 평양사람들 등을 소개
- 2000년대 응비를 위한 남북/북남 경제협력의 현장
- 민족의 공존 공영을 담은 영상 메시지 교환

취재 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북측과 머리를 맞댔다

매일 밤 진행된 다음날의 취재일정 협의 시, 북측은 남측을 배려한 ‘점심 혹은 저녁 식사의 조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듯 했다. 북측은 취재 내용 및 일정 협의보다도 식사조직을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였다.

모든 취재 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북측과 머리를 맞대는 회의의 연속이었다. 8월 중순 금강산에서의 실무협의회서 서명한 ‘생방송 합의안’은 A4용지로 한 권의 책을 방불케 하는 분량이었으나 그래도 세심히 검토되지 않은 점이 많았다. 9월 6일 생방송 본진의 평양 도착 후 실무협의회서 합의안을 바탕으로 생방송 기간중의 방송일정과 취재일정, 취재내용을 통보 · 합의하였으나, 다음날의 취재일정 협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매일 밤 회의를 통해 새로운 취재일정을 협의해야만 했다.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우리측의 백두산 일대 촬영계획에 대해 북측이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우리는 백두산의 자연풍광과 생태, 그리고 관광 대상으로서 백두산을 취재하기로 한 반면, 북측은 김일성 주석의 항일 유적지 그리고 혁명의 성산으로 백두산을 다루어 줄 것을 요구했다. 남측에서 생각하는 민족의 성산 백두산과 북측에서 생각하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은 분단 55년만큼이나 서로간의 시각이 달랐다. 우리는 <백두에서 한라까지>가 남북화합을 위한 방송으로 이념문제를 다루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북측을 설득했다. 생방송 당일 새벽까지 설전을 거듭한 끝에 김 주석이 1930년대 벌였던 항일무장투쟁을 남측의 일부 학자들도 사실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백두산 등 정코스를 안내하는 과정에서 백두산의 혁명 유적지를 소개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부분적이긴 하지만 북을 실제적으로 파악 할 수 있는 소중한 체험을 한 것이다. ‘북측과 협의시’에는 남북이 서로가 통상적인 관행으로 (아전인수로) 해석되지 않도록, 합의문 문구 하나 하나를 세세하게 검토 · 합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절감했다. 북측은 합의문에 서명할 때는 북한식 용어로 ‘통 크게’ 합의문을 작성 · 서명할 것을 주장하나, 촬영 · 편집 · 제작시 ‘합의문에 의거해’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북한체제의 특성상 합의문을 서명한 북측의 당사자들의 권한 밖의 일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생방송 세부사항 사전 협의시’ 워싱턴화 사용을 남측은 방송단이 묵은 호텔을 포함한 백두산 지역으로 생각한데 반해, 북측은 백두산 정상 지역에만 한정해서 허락하였다. 사전협의시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북측 카메라맨의 경우도 남측은 생방송시에만 참여하는 것으로 해석 사전취재시 북측 카메라맨의 도움이 필요했으나 사전 협의사항을 존중 요청하지 않았으나, 북측은 생방송뿐만 아니라 사전 제작시에도 당연히 참여하는 것으로 알아 남측이 의도적으로 북측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오해한 경우도 있었다. 나중에는 오해를 풀었지만...

어쨌든 이번 방송을 통해 북측 제작진과 견해 차이도 있었지만, 밤새워 작업하는 과정에서 방송인들끼리의 강한 동류의식을 느낄 수 있었다.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취재

현 단계에서 방송이 북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도하는 것이 쉽지 않다. 취재 자체도 힘들지만 설령 객관성을 지켜 방송할 경우라도 그것이 북을 자극한다면, 이제 막 싹트기 시작한 남북 화해분위기를 해칠 수도 있는 것이다.

생방송 본진보다 먼저 방북한 사전취재팀이 평양의 이모저모를 취재하면서 취재진은 호의적인 관점에서 일반 주민 인터뷰를 하려고 애썼으나, 북측은 주민 인터뷰에 강한 거부감을 표실했다. 명소를 취재하기로 합의했으면 명소만 취재해야지 그 곳을 찾은 사람들에게 대한 취재는 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대동강의 낚시꾼들, 보통강가의 잠자리 잡는 아이들, 모란봉에 소풍 나온 직장인들... 있는 그대로의 북한 주민들의 모습과 그들의 이야기를 카메라에 담고 싶었지만 쉽게 허락하지 않았다. 북측은 혹 남쪽의 PD가 엉뚱한 질문을 하여 사람들을 당황시킬까봐 무척 경계했던 것 같다.

시간이 지나면서 북측은 남쪽 제작진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며 취재범위를 확대해 주었지만, 기본적인 한계가 극복된 것은 아니었다. 취재 성격상 북한의 그늘진 곳을 부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북측은 과감한 취재허용을 하지 못했다. 노동자들의 가정집 방문 취재나, 일터에서의 생활 취재 등을 계속 제기했지만 끝내 성사되지 않았다. 이는 남쪽의 방송사가 직접 방북 취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부담과 북한 사회의 치부가 조금이라도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으로 여겨졌다.

남측 PD와 북측 카메라맨의 만남

북측은 남쪽과 달리 생방송을 거의 하지 않고, 시차 생중계(녹화)방송으로 주로 이루어진다고 하여, 북측의 생방송 중계와 남북방송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제작(사전취재시 남측 PD와 북측 카메라맨의 공동제작)에 대해 처음에는 우려와 걱정이 되었으나, 부족한 방송장비 외에는 촬영, 중계기술 및 촬영가, 중계 기술요원 등 제작력에 대해서는 모든 면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을 보여 주고 있어, 차후의 공동제작시에도 크게 염려 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다.

북한 TV화면을 보면 호흡이 무척 길고 지루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흔한데 촬영 단계에서부터 그런 촬영 기법을 지양하기 위함이었다. 우리의 경우 기본적으로 한 프로그램에서 담는 정보량이 많다. 때문에 프로그램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다양한 앵글로 많은 화면을 보여주려 하기 때문에 한 화면의 호흡이 짧다. 카메라 워킹의 차이는 발전의 속도와 그에 따른 문화의 차이가 아닐까 한다. 북한방송은 빠른 줌(Zoom)이나 팬(Panning)을 잘 사용하지 않으며, 클로즈업 샷도 자제한다. 집단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을 주목시키기보다 전체의 조화를 강조하는 앵글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사전취재시 북측 카메라맨과 함께 작업한 PD에 따르면 북측 카메라맨 역시 북측의 촬영관행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남측 PD의 주문을 처음에는 낯설어했다. 그러나 2~3일이 지나면서 남측 PD가 원하는 촬영 스타일 파악하고부터는 촬영기법에서의 문제는 전혀 없었다고 한다.

남북 방송용어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의사소통을 방해할 정도는 아니나, 원활한 방송진행을 위해 사전에 방송용어의 체크도 필수적이다. 생방송 본진보다 12일 먼저 방북한 사전취재진은 3팀으로 나누어 취재에 들어갔다. 북측과 공동제작을 담당할 남쪽의 서현철 PD는 조선중앙방송의 카메라맨, 조명기사와 함께 평양의 명소, 평양 사람들의 일상생활 취재를 담당했다. 북의 카메라맨은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다. 촬영에 들어가기 전 남북간에 다른 촬영용어에 대해 얘기를 나누었다. 남쪽이 룡섯, 미디엄 셋, 클로즈업 등 영어용어를 쓰는 대신 북쪽에서는 전경, 중경, 대사 등 한자용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한자식 표현이지만 우리말이기에 그 표현에 친숙해졌다. 실제 촬영에서 남쪽의 PD가 북측의 용어로 주문을 하면 카메라맨은 "클로즈업 말이구만"하는 식으로 응대를 해주는 등 남측 PD를 이해하려고 했다.

남쪽 방송용어	북쪽 방송용어
PD (연출자)	연출가
기자	기자
아나운서	방송원
카메라맨	촬영가
(연출시 Call) 카메라 1, 2, 3	카메라 하나, 둘, 셋 or 촬영 1호기, 2호기, 3호기
디졸브(Dissolve)	용진
오버랩(Overlap)	합성
Zoom-In, Out	줌 전진, 줌 후퇴(빠리, 천천히)
Panning	(좌,우) 선회
Tilt-Up, Down	상승, 하강
Close Up	대사
B.S	근경
W.S	중경
F.S	진경
L.S	원경

생방송 사전 준비의 필요성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취재 및 방송장비의 반입은 생각보다 제한을 두지 않는 듯 보였다. 이는 북측의 시설 노후와 장비의 부족을 노출시키지 않겠다는 의도가 보이지만, 원활한 생방송을 위해서는 장비의 준비가 세심하게 준비되어야 한다. 북측이 제공하기로 합의한 차량의 부족으로 인해 차량 1대에 취재팀 2팀이 함께 이용한 경우도 있었다. 사전취재 시 취재팀 2팀이 한 장소에서 같은 취재를 하는 비효율적인 일이 생기기도 하였다. 이런 문제는 현재 북한의 어려움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원활한 방송준비를 위해서 앞으로 북측과의 공동제작시 차량 제공이 몇 대가 가능한지도 구체적으로 사전에 반드시 체크해 약을 받을 필요가 있다. 또한, 유선확보를 위한 위성전화기, 전력(발전기), FAX, 노트북 컴퓨터, 프린트, 복사기 등도 필수적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이번 경우, 현지의 제작여건으로 인해 방송내용이 원래 예정된 방송순서가 일부 수정되었다. 수정될 경우 방송내용 및 순서를 File로 수정해 프린트를 이용해 복사할 생각이었으나, 서울 메인 방송팀에서 보낸 수정된 큐시트를 Fax로 밖에 받을 수 없었고 (북한에서는 인터넷이 중앙정부 기관에는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중소도시의 기관이나 개인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Fax로 받은 내용을 노트북의 File로 수정하기에는 시간이 태부족이었다. 사전 준비시 복사기를 준비하지 않은 실수로 인해 큐시트 및 대본을 충분히 복사하지 못하여 생방송 진행에 다소 차질이 있었다. (복사기도 북한에서는 평양 외 지역은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듯...)

生放送 준비과정

처음 백두산에서의 생방송을 준비하면서 제일 큰 걱정은 중계장비를 어떻게 백두산 정상과 천지에 수송하느냐의 문제였다. 생방송을 위한 중계장비만 해도 최소한 트럭으로 2대 분량은 되었고, 9월의 백두산 기상과 (북쪽의 조언에 의하면 예전의 경우, 9월초에는 눈이 온다고 함) 생방송 지점까지의 장비이송이 큰 판건이었다. 다행히 방송준비가 시작된 9월 8일부터 마지막 날인 12일까지 닷새 동안 단 한 차례 오전에 진눈개비와 우박이 내린 것을 제외하고는 쾌청한 날씨로 인해 장군봉 정상까지 중계차와 장비차량을 이송할 수 있었다.

① <백두산 생방송 방송센터>는 장군봉 정상부근의 Main 방송센터와 천지 전진기지 두 곳을 설치 운영하고, Main 방송센터(카메라 4대)에서 천지 전진기지(카메라 2대)를 컨트롤 하되, 천지 전진기지는 자체적으로 운영함. ② Main 방송센터의 카메라 4대와 천지 전진기

지의 카메라 2대를 Main 방송센터의 연출자가 천지 전지기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컷트를 Cutting할 수 있는 기술적 시스템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됨. 실제로 이번 백두산 생방송의 경우, 백두산 Main 연출자는 천지 전지기지의 카메라 2대중 천지연출자가 Cutting한 1개의 그림만 확인할 수 있었음. 이로 인해 백두산 Main방송센터 연출자의 효과적인 연출의도에 약간의 차질이 있었다. ③ MC, 출연자(북측의 기자, 역사학자...) 등이 듣는 인터컴 소리는 북측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 불필요한 AUDIO는 생방송 전에 체크가 필수적이다. '북측 출연자'의 경우는 On-Air 오디오와(백두산 Main 방송센터의) 연출자의 오디오 외의 불필요한 오디오(예를 들어, 서울부조의 오디오 등)가 들리지 않는 장치가 필요함. ④ 生放送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SET 등도 현지 사정에 맞게끔 빈틈없이 준비가 되어야 한다. 백두산 생방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고민을 한 것 중 하나가 악천후를 대비한 <본 생방송> <9시 뉴스>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SET를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원래 백두산의 9월은 안개와 바람, 우박과 눈이 내리는 등 기상이 불규칙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백두에서 한라까지> 生放送 기간 중에는 기상악화로 인한 방송진행의 차질은 없었으나, 비바람이 몰아쳐 생방송이 아예 불가능한 상황도 상정해야 한다. 출발 전 악천후를 대비해 SET를 준비했으나, 백두산 천지의 웅장한 배경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되었고, 또한 생방송 기간중인 9월경 백두산 정상과 천지의 기상상태가 남북 방송단의 우려와 예상과는 달리 의외로 좋아 준비해간 SET를 이용하지는 않았다.

남북 방송교류의 당면과제와 공동제작 프로그램의 가능성

남북 방송교류의 초기단계에서는 상호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한 사상과 체제문제를 놓고 논쟁하기보다는 50년의 분단 속에서도 여전히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 조망하고 그것을 확대해나가는 것이 통일을 지향하는 언론의 임무라는 지적(신준영, 남북취재를 준비하는 언론인들을 위하여, 2000.5.9)이 보다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백두에서 한라까지>는 진정한 의미의 방송교류라는 면에서 본다면 아쉬움도 크다. 취재에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고 이 방송을 북한 주민은 볼 수 없었으나, 제작진은 23일간 북에서 취재활동을 하면서 북의 방송인과 다양한 취재원들을 접하는 기회를 가졌다. <백두에서 한라까지>는 남과 북의 문화와 언어를 생생하게 안방에 전달함으로써 남북의 거리감을 좁혀 북에 대한 남측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민족 동질성을 확인시켜 준 데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남북 방송인들이 사상 처음으로 함께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었다는 데서도 의미가 크다.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남북간 방송의 교류와 협력은 우리가 희망하고 주장하는 것처럼 될 수 없는 것이 남북관계, 특히 북한의 현실이다. 우리는 엄연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만 한다. 그렇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는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화해와 협력을 지향하는 방송이며, 나머지 하나는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교류와 협력이다.(유재천, 민족 화해·협력과 방송 2000.9.27) 남북 방송교류 이전에 양측이 서로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지금 단계는 겨우 첫 걸음을 댄 정도라고 해야 할 것이다.

방송교류는 남북관계 발전의 속도를 따르게 될 것이다. 방송이 독자적으로 남북관계의 정치적 속도보다 앞설 수는 없을 것이다. 여건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지금은 북의 객관적 실체를 국민들에게 바로 알림으로써 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물론 북에 대한 보도의 객관성은 언젠가 우리와 함께 살아 가야할 그들에 대한 애정을 전제하여야 한다. 이런 점에서 북한에 대한 사실적인 이해를 도모한다는 기획의도의 KBS <북한리포트 '서울에서 평양까지'>와 같이 남측에서 주문하여 북측이 제작하는 방식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제작방법중의 하나다. 물론 이 경우 북한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카메라에 담아 북한의 실상을 오도할 위험이 있는 한계가 있으나, 현재의 여건에서 남북간 방송의 교류와 협력의 실질적인 방식의 하나라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지금은 엄격한 상호주의의 주장보다는 공감대 확보를 위한 소재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보다 확대된 주제와 소재를 다루는 것을 거시적인 안목에서 단계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본다 (강남준, 북한위성방송에 대한 남한 시청자의 반응조사, 2000.9.7) 이를 위해서는 서로가 이해를 얻을 수 있는 협력과 공동 프로젝트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앞으로 북쪽과 우선적으로 공동제작이 가능한 부분은 예민한 체제문제를 신경 쓸 필요가 비교적 적은 **자연·역사 다큐멘터리**의 공동제작이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남북한 방송 프로그램의 교류와 공동제작에 앞서 해결해야 할 당면 문제는 인적 교류가 급선무이다. 즉, 남북 양쪽의 방송인들이 서울이나 평양, 또는 판문점이나 제3의 장소에서 만나 남북한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 양쪽의 편성, PD, ANN, 기자, 엔지니어 등의 실무 대표가 남북한을 서로 오가며 제작현장과 시설 등에서 만나 신뢰를 쌓아야 이를 계기로 방송정보를 교환하고 서로의 문제점을 기탄 없이 협의과정을 거칠 때, 신뢰와 더불어 실질적인 교류방안과 공동제작이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남북 방송교류협력과 남북관계사의 활성화를 위해서 방송장비를 비롯해, 남쪽에서 북쪽을 지원해 주는 어떤 것도 이제는 더 이상은 남쪽에 위협이 되지 못하며, 앞으로 이산가족 왕래 등 남북교류가 점점 활발해지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남쪽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 <별첨> : <2000년 한민족 특별기획 '백두에서 한라까지'> 제작 일지

- 8/24 : <사전취재팀> 출국 → 중국 북경 도착
- 8/25 : 북경소재 주중 북한대사관에서 VISA 수속
- 8/26 : 08시, VISA 발급후 → 평양으로 출발
- 8/27~9/5 : 평양 취재
- 9/3 : <生放送 본진> 서울 출발 → 중국 북경 도착
- 9/4~9/5 : 주중 북한대사관에서 VISA 수속
- 9/6 : 북경 출발 → 심양 도착, 심양 출발 → 평양(보통강 호텔) 도착
→ 사전취재팀 본진과 합류
- 9/7 : 평양 출발 → 삼지연 공항 (→ 베게봉 호텔) 도착.
장비 시험 및 점검, 편집실 운영 시작,
밤 9시, 북측과 취재일정 협의
(※이후 매일, 다음날의 취재일정 협의)
- 9/8~9/9 : 장비설치 (장군봉 정상 Main방송센터 및 천지 전진기지) 완료,
사전취재 촬영본 및 편집본, 서울 송출
- 9/10 : <6시 뉴스특보> <9시 뉴스> 생방송 참여
- 9/11 : <6시 내고향> <9시 뉴스> 생방송 참여
- 9/12 : <2000년 한민족 특별기획 '백두에서 한라까지'> 생방송 참여
<9시 뉴스> 생방송 참여
백두산방송센터 중계장비, 삼지연(베게봉 호텔)으로 철수
- 9/13 : 생방송 제작진, 삼지연 출발 → 평양(보통강 호텔) 도착
- 9/14 : 장비차량 (중계차 및 장비차), 백두산 삼지연 출발
- 9/16 : 평양 출발 → 북경 도착
- 9/18 : 북경 출발 → 서울 도착

참고문헌

- 강남준, “북한 위성방송에 대한 남한 시청자의 반응조사”
- 2000 KBS 통일방송 국제 심포지엄 ‘남북한 화해·협력시대의 방송의 역할’ 2000. 9. 27
- 서현철, “KBS 2000년 한민족 특별기획 백두에서 한라까지 제작기”
- 숙명여대 통일문제연구소 주최 ‘방북프로그램 사례발표’ 2000. 11. 10
- 신준영, “방북취재를 준비하는 언론인들을 위하여”
- 한국언론재단 & 한국기자협회 공동주최 ‘남북정상회담과 언론교류 워크샵’ 2000. 5. 9.
- 유재천, “민족 화해·협력과 방송”
- 2000 KBS 통일방송 국제 심포지엄 ‘남북한 화해·협력시대의 방송의 역할’ 2000. 9. 27
- 여의도클럽, “남북한 방송 프로그램 교류의 방향성 정립”
- ‘2000년도 추계 포럼’ 2000. 10. 20

◎방북 프로그램 제작 사례 ②

【MBC특별기획-남보원의 누나 상봉기 ‘고왔던 내 누이야’】

정호식 (MBC 시사교양국 차장)

제작개요

프로그램 제목: MBC특별기획-남보원의 누나 상봉기 “고왔던 내 누이야”

방송일시: 2000.9.1 밤 9시 55분 (55분),다큐멘터리

*2000.8.14 밤 11시(70분),생방송 ‘현미 남보원이 본 평양’

초청기관: 민화협

방북제작기간: 2000.8.5~8.12(7박 8일)

방북경로: 심양-평양, 평양-북경(고려민항)

제작스텝: 기획 김운영

연출 정호식

촬영 김경철

동행인사: 현미(가수,김명선)-여동생 김명자,김길자

남보원(코미디언,김덕용)-누나 김덕화, 매형 우준규

숙소: 평양 고려호텔

북측 진행 요원: 민화협 3명, 운전수 2명

방북 중 일정: 묘향산, 용문 대굴, 성불사

*평양에서의 일반적인 공통 일정은 제외

촬영장비: 디지털 베타캠(SONY DVW-790WS)

6mm디지털 캠코더(SONY PD-150)

*참고로 평양에는 디지털 베타캠(NTSC방식)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일반 베타캠을 가지고 가야함.

상봉결과: 현미씨는 아무도 만나지 못함

남보원씨는 누나를 만남

*남보원씨는 마지막 날 아침 순안공항으로 출발하기 한 시간 전에야

누나와의 상봉이 50분간 이루어 짐

촬영 후기

-개인적으로는 평양에 대한 궁금증 혹은 기대가 너무 컸던 탓인지 몰라도 오히려 실망을 하고 돌아왔다는 느낌이다.

-똑 같은 평양을 보고 와서도 전혀 다른 인상을 이야기하는데서도 큰 혼란을 경험했다. 물론 그 곳에도 사람이 살고 있었지만 과연 그들이 겉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만큼 행복한가 하는 의문의 해답을 구할 수 없었다.

-평양전체를 누르고 있는 “피로”,“무력”,“나태”에 놀랐다. 서 있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웠다. 전차를 기다리거나 식당 앞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평양을 벗어나서는 더욱 심했다. 옥수수밭에서도, 마을 길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안내 요원의 자질도 문제가 있었다.

-물론 일의 진행상황에 따라 달리 보이기도 했겠지만 우리 팀의 경우엔 그들은 마치 태국이나 동남아 관광 가이드 수준이었다.

-사회 전체의 경직성이 심각했다

-가령 우연히 만난 사람들 혹은 우연히 부딪친 상황에 카메라를 들이댔을 때 피하거나 안

내원이 제지하지 않으면 연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평양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는 좋은 기억을 남겨준 사람들도 있었다.

-특히 북경 공항의 고려민항 여객부장은 비행기 시간문제로 곤란에 빠진 취재팀을 헌신적으로 도와주었다.

이런 시각이 자칫 냉전적 사고들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하고 반문도 해 봤으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데서부터 시작하는 발걸음만이 통일로 향하는 진정한 전진이 된다는 생각이다.

통일은 현실이다. 그리고 통일은 일회성의 이벤트가 아니라 하나의 긴 여정이다. 그래서 더욱 현실을 인정하고 그대로 전달하려는 방송인들의 노력이 중요하다. 과거와 같은 차이점을 과장해서 부각시키려는 자세도 물론 지양되어야 하지만 그와 동시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이질성을 무시하거나 덮어버리려는 경향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이다.

구호로 본 평양의 8월

내 생각에는 평양은 구호의 도시였다. 마침 조선 노동당 창건 55주년을 앞두고 있던 평양은 온통 구호천지였다. 사람은 왜소해지고 거창한 구호들만 거리를 뒤덮고 있었다. 그래서 구호들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직접적인 접촉이 엄격히 통제된 상황에서 그것들을 통해서라도 그들의 속내를 어느 정도 엿볼 수 있을 것 같아서다.

기록해 온 구호 중에서 몇 가지를 소개하겠다.

-혁명적 군인정신, 강계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당창건 55돐을 사회주의 건설의 일대 고조로 빛내이자!

-모두다 당창건 55돐을 빛내이는 돌격전의 영웅이 되자!

-혁명의 영도계급, 강성대국의 핵심부대답게 오늘의 총 진군에서 조선노동계급의 창조력과 영웅적 기상을 다시 한번 힘있게 떨치자!

-철도에서 군대와 같은 강한 규율을 세우고 수송조직을 짜고 들어 철도운영을 하루 빨리 정상화시키자!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높은 자각을 가지고 농사일을 주인답게 하여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자!

-감자농사에서 혁명을 일으켜 먹는 문제를 해결할데 대한 당의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자!

-감자를 주식으로 널리 이용하고 민족음식을 발전시키며 우리의 식생활방식을 개선하자!

-오늘을 위한 오늘을 살지 말고 내일을 위한 오늘을 살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과학중시사상을 빛나게 실현하자!

-토지정리를 섬멸전의 방법으로 대담하고 통이 크게 벌려 조국땅을 진정한 사회주의 조선의 땅답게 변모를 일신시키자!

-노동당시대의 대기념비적인 창조물인 평양-남포 고속도로 건설을 당창건 55돐 전으로 훌륭히 완공하자!

-수도건설자들은 주요대상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평양시를 더욱 웅장화려하게 꾸리자

.....

이상의 구호들은 대부분 올해에 새로 발표된 것들이며 거리마다 다양하게 붙어 있었다. 그리고 특히 경제부문의 구호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작금의 북한의 경제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평양은 여전히 사회주의 조선의 혁명의 수도였다. 이 말은 전혀 변한 것이 없다는 뜻이다. 물론 북한이 우리보다 더 변화에 경직된 체제를 유지하고있기에 변화에는 생각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은 짐작된다. 따라서 우리 방송도 너무 성급하게 억지로 동질성을 확인하려 들지 말고 냉정하게 이질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더욱 방송의 역할이 중요하다.

◎방북 프로그램 제작 사례 ③
【SBS 평양뉴스 2000】

오기현 (SBS 남북방송교류협력실 PD)

SBS 평양뉴스 2000

1. 취재 기간: 10월 7일 ~ 15일 (8박9일)
2. 취재 장소: 평양, 남포, 개성, 구월산, 묘향산등
3. 생방송 장소: 대동강변 주체사상탑 및 김일성 광장
4. 참여인원: 앵커 1명, 취재기자 6명, 카메라기자 9명, PD 1명, 제작 카메라 1명, 중계기술 5명, 중계 카메라 2명, 세트미술 2명등 총 29명
5. 북측 실무담당자: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민족경제협력연합회, 민족화해협의회등 총 11명

6. 방송내용:

- 10/9 8시뉴스 1) 로동당 창건기념일 행사준비 상황
2) 남측방문단 도착 상황
- 10/10 8뉴스 1) 당창건기념식
2) 11년만에 등장한 평양의 야외매대
3) 꽃 박람회
- 10/13 8뉴스 1) 노벨평화상 북측반응
2) 남포항의 옥수수 하역작업
3) 가뭄피해현장
- 10/14 아침뉴스 1) 5.1 경기장 집단체조
2) 남북합작수경재배
3) 대성산 중앙동물원의 조선법
- 10/14 8뉴스 1) 경의선 분단점을 가다.
2) 평양-남포간 고속도로
3) 현대체육관 건설현장
4) 김대통령이 선사한 진돗개
5) 북한의 만화영화 제작현장

7. 북측의 협조내용

- 숙소배려
- 전용회선을 통한 서울 - 평양 교신
- 촬영 아이템 협조

남북방송교류의 전망

1. 북한의 방송교류의 성격

2. 방송교류의 창구

- 북경 등 해외 에이전트를 통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등 대남사업부서
- 조선중앙방송위원회

3. 방송제작 현장의 변화

- 1) 98. 5. 16 : 혁명사적지 중심, 민간인 인터뷰 불가, 엄격한 검열
- 2) 99. 11.20 : 제한된 이산가족 상봉, 민간인 인터뷰 제한적 허용, 당일 검열
- 3) 2000. 10. 7: 금기시 되던 현장 허용, 민간인 인터뷰 대폭 허용, 현장 검열

4. 북한의 방송 원칙

- 1) 정치우위의 원칙
 - 남은 민간차원의 방송교류를 통한 통일운동
 - 북은 당국의 통일정책과 연계

- 2) 사전연출의 원칙
 - 남한은 현장성을 중시하나 북은 개념을 중시

- 3) 검열필수의 원칙

5. 남북방송 교류시 비용과다의 문제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에 따라 비용 자연스럽게 적정선으로 안정될 것

6. 향후 남북방송교류의 방향

- 1)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따라 정치적 상황에 민감, 종속변수
- 2) 부문별 가능성과 한계
 - 드라마: 사극의 제작물교류는 가능할듯, 공동제작은 시기고민
 - 공연물: 상호교류의 가능성, 그러나 대상폭은 적을 듯
 - 교양물: ‘교양’과 ‘정보’의 개념 차이, 역사인식의 차이, 지역적 특성의 한계

7. 대북방송교류시 유의사항

- 인간적 신뢰관계 구축, 전문성 확보
- 감격기에서 탈출해 실질적 접근 필요

통일 관련 프로그램 점검 및 과제

이광조 (CBS PD)

1. 정상회담 이후 북한, 통일 관련 프로그램의 변화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와 통일 문제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방송에서도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언론사 사장단이 북한을 방문하면서 남북한 방송교류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고 남쪽 방송사들이 백두산과 평양에서 생방송을 진행하는 획기적인 이벤트가 성사되기도 했다.

이런 변화는 기존 북한, 통일 관련 프로그램(여기서는 정규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췄다)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변화는 진행자의 말투와 표정에서부터 묻어난다. 과거 북한 체제에 대한 비판과 남한 체제의 우월성 강조에 초점을 맞췄던 북한 관련 프로그램들이 북한의 현실을 전달하는 정보 프로그램으로 새롭게 단장한 것이다.

북한 관련 방송 프로그램의 이런 변화는 때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분명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의 급격한 변화와 그 변화에 대한 시청취자들의 혼돈, 그리고 북한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을 생각할 때 기존 북한, 통일 관련 프로그램의 변화된 모습은 아직도 기대에 못미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판단은 우선 각 방송사의 북한, 통일 관련 프로그램이 여전히 시청취자들로부터 주목을 끌지 못하고 있는게 아닌가하는 데서 비롯된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우선 시청취자들 사이에서 기존 북한, 통일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고정된 이미지(재미없고, 유익하지도 않고, 신뢰도 안가고 등등)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부터 문제를 생각해야 할 것 같다. 냉전적인 시각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똑같은 화면, 똑같은 구성으로 이뤄진 북한, 통일 관련 프로그램으로는 시청취자들에게 흥미를 끌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점이다.

이런 사정은 방송사 내부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과거와 달리 북한, 통일 관련 프로그램이 제작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지는 않지만 각 방송사들은 방북 취재 같은 이벤트성 사업에 일차적인 관심을 둘 뿐 북한, 통일 관련 정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한 것 같다.

정상회담 이후 기존 북한, 통일 관련 프로그램의 시간대를 변경한다든지 제작시간을 늘리는 등의 변화는 있었지만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나 새로운 포맷 개발 등의 노력은 아직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2. 각 방송사별 통일 관련 프로그램 현황(정규 프로그램)

1) KBS

<남북의 창>, 목요일 밤 11시 40분부터 12시 10분까지, 보도국 제작

11월 9일(목) 방송내용

\주간 남북관계 소식(적십자 회담, 북한-유럽연합 관계 개선, 금강산 가극단 서울공연 소식, 영화인 북한 방문, 북한 텔레비전 교육방송 다큐멘터리 방송)

\이산가족 교환 방문 문제에 관한 기자 리포트

\윤이상 음악제 소식(북한 뉴스 편집, 소개)
\북한 텔레비전 영화 <인생의 절정>(과학자들의 삶) 소개
\북한은 지금(북한출신 김혜영씨 출연, 북한의 애니메이션과 기술 수준 소개)
\북한의 토지정리 사업(북한 텔레비전 화면 소개)
\드라마로 본 북한(<붉은 감> 소개, 통일연구원 서재진 박사의 해설)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앙동물원에 백마 회사 소식(북한 화면)
\메탄가스 대용 연료 이용
\북한 노래 소개, “우리조선 자랑 노래”
\북한 방송의 해외 뉴스 소개

<북한 리포트, 서울에서 평양까지> 신설(화요일 저녁 10시부터 10시 50분까지, 일종의 북한 인문지리지)

11월 7일(화) 방송내용

\조선 중앙 텔레비전 제작분
북한 여성 기자가 출연해 청진항 소개
청진의 자연, 산업 소개, 청진 토박이와 전통 가옥 소개
인민학교 학생들의 소풍
청진의 태권도 가족 소개
가극과 민속무용 소개
청진 소재 대학과 의료기관 소개

\스튜디오 출연자들과의 대담, 전문가 해설

청진 출신 실항민
민속학자 주장현 박사

\북한의 식량사정과 남북 농업협력 사례

우리민족 서로돕기 이용선 사무국장
대한잡사회 회장

2) MBC

<통일전망대> (토요일 아침 7시 45분부터 8시)

3) EBS

<남북은 하나>, 일요일 저녁 8시 30분부터 9시 20분까지

11월 12일(일) 방송 내용

“남북의 40대 여성, 차이점과 공통점”

\TV속의 북한, 북한속 TV(북한출신 장성산씨 출연, 북한 화면과 함께 북한 여성의 지위와 역할 소개)

\신 남북시대, ‘북한의 40대 여성들, 남북의 아줌마 시장에서 만나다’

임순희박사, 김민정박사 출연

\통일현장 리포트

서울대학교 통일 동아리 RINGO 소개

4) SBS

<통일로 가는 길> 폐지, 단순한 정보 프로그램의 한계

5) 경인방송

<통일마당 남남북녀> 폐지, 방송 아이템과 자료의 고갈

6) 평화방송

<일요기획, 삼천리 우리는 하나>, 일요일 오후 3시 5분부터 50분까지
\북한, 통일 관련 뉴스(생활 중심)
\통일 초대석(전문가 대담)
\통일의 현장(리포터 코너, 행사나 단체 소개)
\통일단상(5분 칼럼, 크리스찬의 시각에서 남북관계와 통일문제를 생각)

7) 불교방송

<통일로 하나로>, 일요일 오전 7시 5분부터 8시까지(기존 30분에서 55분으로 시간 연장)
\전문가 대담
\통일관련 단체, 불교계의 통일운동 소개

8) 기독교방송

<2000년 남북 평화 만들기>, 2000. 3 ~ 10월, 장기 기획, 20분 녹음 구성물
북한과 통일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일상생활 속에서 점검

***우리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얼마나 알고 있나?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몇가지 오해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아십니까?
\남과 북, 조금은 다른 조금은 비슷한 친구
\북한에 대한 오판과 오보는 어떻게 만들어지나?

***남과 북, 닮은 꼴과 다른 꼴
\바깥에서 바라 본 남과 북
\노래로 만나는 남과 북
\세계로 가는 북한

***우리가 모르는 분단 이야기
\북으로 간 가족에게 띄우는 편지
\끝나지 않은 전쟁
\남북자, 그들만의 이별
\대인지뢰, 전쟁을 밟고 사는 사람들
\시들어 가는 사람들 휴전선 곁에
\민통선 사람들
\판문점, 그 분단 반세기의 기록

***화해와 협력의 시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무기의 그늘
\이제는 평화협정이다
\선생님 통일 어떻게 해요?
\함께 사는 연습

<통일로 가는 길, 북남북녀>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5분부터 9시까지
북한출신 최동성, 홍경화씨 출연
북한의 일상생활 소개, 남북관계 현안이나 남한사회의 현실을 북한주민의 시각에서 얘기

3. 총괄적인 평가

현재 각 방송사별 북한, 통일 관련 프로그램의 현황을 보면 우선 내용면에서 과거의 냉전적 시각에서 탈피하려고 한다는 점, 그리고 시간대와 방송시간에 대한 배려가 눈에 띈다. 그리고 방송 아이템 선정에 있어서도 정치적인 이슈를 배제하고 일상생활로 접근하려는 태도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텔레비전의 경우 KBS가 <북한 리포트, 서울에서 평양까지>를 신설한 것 외에는 기존 포맷과 다른 새로운 시도는 보이지 않으며 방송사 차원의 관심과 투자도 이벤트성 기획에 치중되어 있다. 그러다보니 다른 한편에서는 아이템과 자료 부족, 그리고 포맷 개발의 제한 때문에 프로그램 자체가 폐지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결국 정상회담 이후 북한과 통일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아졌지만 방송사 차원에서는 이런 관심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라디오 방송 역시 기존 프로그램의 방송시간을 늘린 것 외에 이렇다할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4. 북한, 통일 관련 프로그램의 과제

정상회담 이후 우리 방송에 비친 북한의 모습은 과거에 비해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 이런 변화를 놓고 일부에서는 '북한의 현실을 미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지만 현실은 오히려 과거 우리 방송의 문제점을 더욱 부각시켜주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변화는 그 단적인 예가 될 것이다.

굳이 우리와는 여러 가지로 사정이 다른 동서독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앞서 언급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예는 남북한의 화해와 통일(장기적인 관점에서)에 방송이 얼마나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확인시켜 준다. 이런 현실에서 방송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1) 통일에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

당위적인 통일논의의 부작용은 여기서 새삼 지적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남북한 모두 단기적인 관점에서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이 해야 할 역할은 남과 북이 적대하는 분단현실이 남과 북의 발전과 우리 삶에 어떤 질곡을 안기고 있는지를 일상생활 속에서 접근해 가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2) 통일에 대한 창조적이고 개방적인 접근

정상회담을 전후로 해서 우리사회 일각에서는 '김정일이 통일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냐'는 비아냥 섞인 지적이 있었다. 이런 현실은 우리가 '통일'의 미래상을 중앙집권적인 우리 현실의 연장으로 좁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한다. 이런 중앙집권적인 전통은 북한에서는 더 심할 것이다. 많은 탈북자들이 전하는 것처럼 북한에서는 '김정일이 통일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돈다고 한다.

하지만 남북한의 적대적인 관계가 해소되면 많은 서구 국가의 경우처럼 연방제적인 정치 체도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남북한이 중국과 홍콩의 경우처럼 상당기간 서로 다른 체제

로 공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성급한 통일에 대한 보다 창조적이고 개방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3) 민족사적 관점

북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남북한의 진정한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는 분단을 남북한 사이의 이념대결이라는 측면보다는 좀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민족사적인 인식이 필요하다.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을 우리 힘으로 물리치지 못하고 해방을 우리 힘으로 이루지 못함으로써 남과 북 모두 왜곡된 근대화를 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인식하고 분단극복이 민족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4) 균형 잡힌 비판의식

우리가 흡수통일을 포기하고 화해와 협력에 기반한 평화로운 통일을 추구한다면 균형 있고 책임 있는 비판의식이 필수적이다. '남한=선=우등, 북한=악=열등'이라는 이분법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통일을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드는 과정으로 이해한다면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비판보다는 북한의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초로 한 책임 있는 비판이 필요하며 아울러 우리 스스로의 문제를 함께 볼 수 있는 균형 잡힌 비판의식이 필요하다. 북한의 존재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사회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북한사회를 제대로 이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5) 북한 시청취자들을 염두에 둔 방송

북한의 실상을 소개하는 아니면 북한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북한주민들까지 염두엔 둔 자세로 프로그램을 제작해야하지 않을까.

6) 우리사회 내부의 합의를 만들어 가는 방송

5. 북한, 통일 관련 프로그램의 개선책

1) 방송사 차원의 통일 방송에 대한 개념 정립과 정책적 의지

앞서 지적했듯이 남북관계의 변화에 비춰볼 때 북한, 통일 관련 프로그램의 변화는 아직 미미한 편이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방송사 차원에서 아직 통일 방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통일 방송의 내용과 방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KBS가 얼마전 신설한 <북한 리포트, 서울에서 평양까지>는 편성국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정규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사례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북한 중앙방송이 제작한 화면과 다양한 구성으로 북한, 통일 관련 프로그램의 새로운 시도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제작자들이 정치변화에 따라 '프로그램이 어떻게 될 지'를 걱정하는 걸 보면 아직도 우리 방송사들이 통일 방송에 대한 철학 없이 시류에 편승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 KBS의 경우 공영방송으로서 갖는 위상 때문에 정치권의 변화에 민감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방송의 역할은 정치권의 흐름에 따라 좌우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교육방송의 경우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방송내용에 대한 경영진의 간섭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북한, 통일 관련 프로그램이 제자리를 잡고 시청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방송

사 차원에서 통일방송에 대한 뚜렷한 개념정립과 정책적 의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하겠다.

2) 프로그램 내용과 포맷의 문제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한 북한관련 정보 프로그램은 어느때보다 그 필요성이 크다. 하지만 현재의 포맷과 내용, 제작여건으로는 북한에 대한 이해와 통일을 준비한다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그 한계가 뚜렷한 것 같다.

현재 북한 관련 정보 프로그램의 구성을 보면 최신 북한 소식과 생활상 소개가 중심을 이룬다. 하지만 북한 텔레비전의 화면을 보여주고 진행자가 이를 소개, 해설하는 형식으로는 시청자들에게 흥미를 유발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한 고정된 이미지를 심어주는 역효과를 낼 우려도 없지 않다.

KBS가 새롭게 방송하고 있는 <북한 리포트, 서울에서 평양까지>의 경우 주로 연배가 높은 시청자들로부터 '북한이 저렇게 잘산단 말이나'는 항의가 들어온다고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화면에 비친 북한의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북한하면 '가난, 촌스러움' 같은 이미지를 떠올리게 할 것이다.

영상은 이미지를 고정시키는 효과가 강하다. 그런 점에서 지금처럼 단순하게 북한 텔레비전의 화면을 보여주고 해설을 덧붙이는 정보 프로그램의 틀을 벗어나서 좀 더 다양한 구성을 가진 프로그램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민속학자 주강현씨의 해설과 실향민들의 회고담을 가미한 <북한 리포트, 서울에서 평양까지>의 시도는 이런 점에서 조금 나아진 모습을 보여준다.

다양한 포맷 개발의 문제는 '기획'의 문제다. 이와 관련해서 꼭 한번 생각해 볼 문제는 북한 관련 프로그램을 지금처럼 보도국에서 제작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하는 점이다. 단순한 북한 소식 전달은 오히려 정규 뉴스시간을 활용하고 북한, 통일 관련 프로그램은 기획성을 살려 단순 정보 프로그램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북한의 존재를 생각하지 않고 남한사회를 이해할 수 없듯이 그 역도 마찬가지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통일 관련 프로그램은 북한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는 차원에서도 단순한 정보 전달 기능에서 벗어나서 우리사회에 뿌리 박힌 냉전구조와 의식의 문제도 함께 되돌아보는 그런 전체적인 시각이 필요할 것이다.

과거 CBS <통일로 가는 길>의 포맷이 이런 점에서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통일로 가는 길>에서는 최신 북한 소식과 그에 대한 해설, 그리고 남북관계를 둘러싼 쟁점에 대한 토론, 분단과 통일의 문제에 대한 문화적인 접근을 종합적으로 시도했다.

그 중에서 문학작품 속에 스며 있는 분단의 문제를 작가와 함께 생각해 보는 '분단 문학 기행'이나 '영화속에 비친 분단 이야기', '대중가요 속에 숨어 있는 분단 이야기' 등은 청취자들에게 보다 쉽게 다가가는 통로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물론 정규 프로그램에서 모든 걸 할 수는 없는 일이고 분단과 통일의 문제는 다양한 프로그램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야 할 것이다. <간첩 리철진>이나 <JSA>같은 영화가 우리사회에 끼친 영향을 생각하면 백편의 정보 프로그램보다 한 편의 잘 만들어진 드라마가 더 효과적일 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통일에 대비하는 재미있는 교양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제는 포기할 수 없는 방송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3) 제작여건 개선과 전문팀 구성 문제